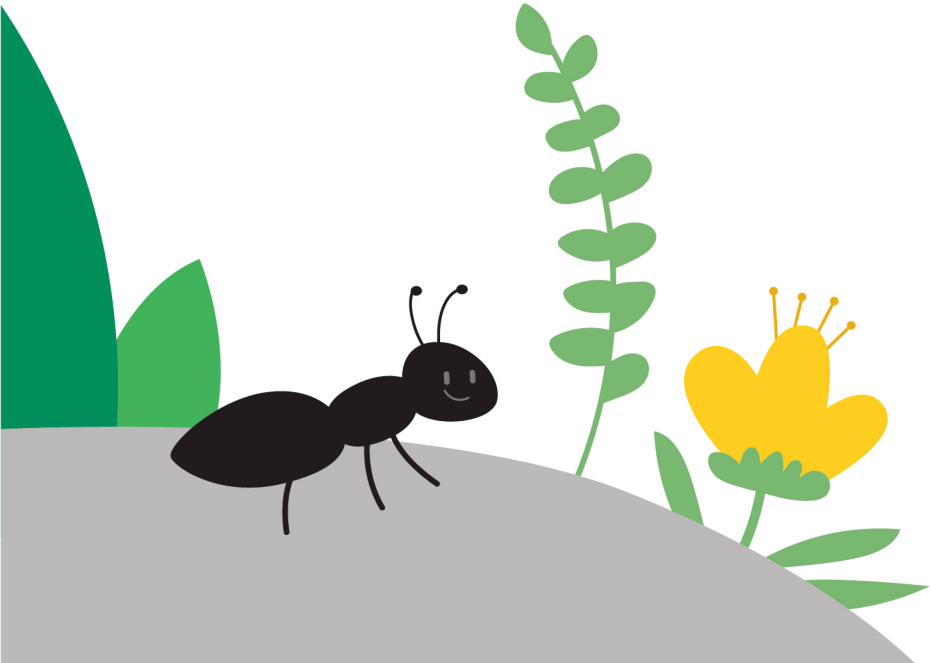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5 유치원 생태전환교육 정책실행교육연구회

생태전환적 삶으로 스며들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Ⅰ 놀이로 만난 생태전환교육 ---------- 7

1. 개미들도 대피훈련을 할까? ---------- 8
2. 콩이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걸까? ---------- 14
3. 꽃을 따는 행동은 나쁜 걸까요? ---------- 20
4. 내 손안의 작은 친구, 양말목 꼬불이 ---------- 24

Ⅱ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실천역량 기르기 --- 31

1. 함께 살아갈 권리-동물과 우리 ---------- 33
2. '먹기 싫으면 남겨도 될까요?' ---------- 34
3. 팜유에서 시작된 먹거리 고민 ---------- 36
4. 장난감 없이 놀아보자! ---------- 39

Ⅲ 가정·지역으로 스며드는 생태전환교육 ---- 43

1. 생태전환교육, '그림책'으로 삶과 가정에 스며들다 ---------- 44
2. 생태전환교육, '진정한 아나바다'로 삶과 가정에 스며들다 ---------- 55
3. 가정과 함께하는 생태전화교육, 에세이로 담다 ---------- 61

Ⅳ 생태전환적 삶으로 스며드는 문화 조성 ---- 69

1.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실천리스트 ---------- 70
2.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실천 ---------- 72

Ⅴ 에필로그 : 다큐를 담다 ---------- 81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생태전환교육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생태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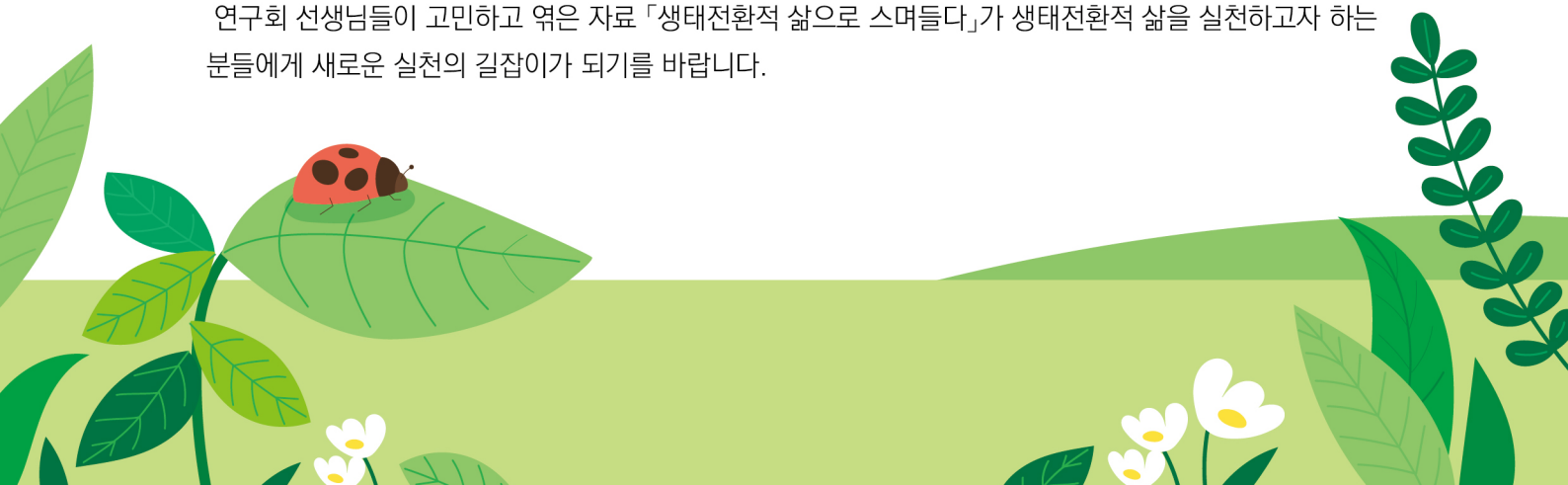
2024년 연구회에서는 「생태전환교육, 에세이로 담다」를 통해 생태적 사고의 전환을 위해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성찰과 고민의 순간을 글로 담아, 생태전환적 삶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연구회는 사유와 성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치원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태전환적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생태전환적 삶으로 스며들다」는 유치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아이,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생태적전환적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유치원 일상 속에서 생태전환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인간, 비인간, 자연의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얽혀
관계를 맺는 경험과 실천,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배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니 생태전환교육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이미 아이들 안에 존재하는 '함께 살아가는 타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깨워주는 교육'입니다. 교사는 일상에서 무심하게 했던 행동들과 교실에서의 모습을 다시 보며 생태전환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 사유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자료집을 읽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낸 놀라운 질문과 통찰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태환경에 대한 공감과 연대, 자연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연구회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엮은 자료 「생태전환적 삶으로 스며들다」가 생태전환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실천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I



놀이로 만나는 생태전환교육

1. 개미들도 대피훈련을 할까?

2. 콩이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걸까?

3. 꽃을 따는 행동은 나쁜 걸까요?

4. 내 손 안의 작은 친구, 양말목 꼬불이

개미들도 대피 훈련을 할까?

재난대피 훈련이 있는 날, 작은 이웃들을 만나다!

바깥에서 산책을 하거나 바깥놀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작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바로 작은 개미이지요. 개미는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생명체로,
생태 환경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재난대피 훈련이 있던 날, 아이들과 함께 작은 이웃 개미를 만나고
관찰하며 '함께 살아가기'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재난대피 훈련 사이렌이 울리던 그 날,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밖으로 대피한 아이들은 마당 놀이터 보도블록 구석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개미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재난대피 훈련

우와! 개미들이 줄 서서 가고 있어.
얘네들도 우리처럼 대피 훈련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옆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빨리 대피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개미들도 우리처럼 위험하면 안전한 곳으로 갈까요?



줄지어 가는 개미 발견!

관점의 전환 그리고 개미와의 만남

평소 같으면 '또 개미를 발견했나보네.' 하며 대피 인원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으로 서둘러 이동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빨리 가자, 아직 할 일이 많아."라고 재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미를 발견한 흥분이 아니라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얘네들도 우리처럼 대피 훈련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 한마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개미를 어떻게 보고 있었지? 그저 관찰할 수 있는 작은 곤충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개미도 우리처럼 위험을 감지하고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인간만이 훈련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이미 **개미를 '관찰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줄 지어 이동하는 개미들의 모습을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개미들의 삶', 그들의 대피와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태전환교육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자연을 지식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이들 곁에 앉아 함께 개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미와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바라보는 아이들의 질문과 호기심 어린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다! - '개미도 우리처럼'

개미의 모습과 생활에 궁금증을 가지다!

밖에서 개미를 만난 후, 아이들과 개미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며 개미의 생활, 개미가 위험할 때 대피하는 방법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개미에 대해 알아보며 아이들은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우와! 개미는 더듬이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느낀대요!
비가 많이 오면 땅을 파서 대피하는 방을 만드는 게 신기해!
홍수 날 때 개미들끼리 뭉쳐서 물에 떠서 땅으로 대피하는 게 대단해요!
(개미집 실험 영상을 보며) 개미가 갇혀 있어서 너무 불쌍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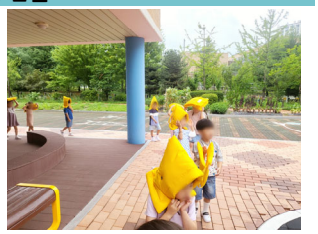


개미에 대해 궁금한 점 알아보기

개미도 우리처럼 - 안전을 위해 대피해요!



줄지어서 이동하는 개미



줄 서서 이동하는 아이들



협력하여 안전한 장소로 모이는 개미



안전한 대피 장소에 모인 아이들

개미의 모습과 재난대피 훈련 사진을 함께 보여주니, 아이들은 개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는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개미에 대해 알아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와 닮은 개미의 생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개미집에는 방이 엄청 많아! 여왕개미방, 일개미방, 알방, 먹이방, 쓰레기방, 시체방도 있어요.

우리 집은 아빠, 엄마방, 형방, 내방, 거실이랑 밥 먹는 곳 이렇게 방 5개인데..개미는 방이 엄청 많네요!

개미도 우리처럼 아기를 돌보나봐! 먹이도 먹여주고...

선생님~ 개미들은 왜 위험하면 알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요?

왜 그럴까? 아빠, 엄마가 너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개미들도 그런 것은 아닐까?

개미도 우리처럼 -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집을 짓는 개미



알을 낳고 돌보는 개미



집을 지키는 개미



먹이를 함께 나르는 개미

아이들의 순수한 발견과 대화를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미와 우리의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분리된 존재가 아닌 **서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바로 이런 일상의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협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미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개미 놀이 – '우리도 개미처럼'

자유 놀이 시간, 어제 개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이 기억났는지 한 아이가 개미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개미 놀이해요! 선생님이 여왕개미하면 어때요?

좋아! 선생님이 여왕개미할게. 그럼 여왕개미는 무엇을 하면 될까?

알을 많이 낳으면 돼요! (하얀색 떡국떡 모형을 보여주며) 이게 알이에요!

그럼 난 알 돌보는 일개미할래.

난 집을 짓는 일개미 해야지.



개미집 통로를 만들고
개미처럼 이동해요!

개미가 되어 개미집을 구성해요!



협력하여 개미집을 지어요!



여왕개미와 알이 있는 방



먹이방(음식 창고)



쓰레기방

어제 개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떠올렸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직접 개미가 되어 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교실은 분주한 개미집으로 변신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블록과 의자를 활용하여 개미집 통로와 먹이가 있는 방, 쓰레기 방, 여왕개미방, 알방, 애벌레방, 요리실 등을 구성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개미 놀이를 하며 개미의 모습을 표현해요!



요리방에서 요리하는 개미



먹이를 먹고 있는 개미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개미



알을 돌보는 개미

한 아이가 **"잎꾼개미는 버섯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내며 버섯농장과 요리실을 만들고, 개미 애벌레를 위한 놀이방을 만든 순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와는 다르지만, 아이들만의 상상력으로 **자연의 순환**과 **협력**을 표현하고 있었죠. 온몸으로 개미가 되어본 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각자 다른 역할이지만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개미 사회를 통해 상호의존성과 협력의 가치를 몸으로 익혀가는 모습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개미를 **'우리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아끼는 마음**에서 진정한 **생태적 감수성**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농사짓는 잎꾼개미

함께 안전하기 - '대피소 놀이'

며칠 동안 아이들은 다양한 개미집을 구성해 가며 개미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만든 한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개미 대피소 공간

얘들아~ 여기 알이 있는 방 옆에 만든 곳은 어떤 방이니?

여기는 위험할 때 대피하는 곳이에요.

알이 제일 소중하고 빨리 대피해야 하니까 대피소 옆에 있는거예요.

그럼 다른 곤충들이랑 동물들은 왜 있는거니?

다른 곤충들이랑 동물들도 위험하면 여기로 대피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만든 대피소 공간을 보며 개미들도 위험할 때 함께 안전하길 바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개미를 단순히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개미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알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개미들의 마음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동물들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동물 보호소는 있지만, 반려동물은 사람들의 대피 공간에는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뉴스 기사를 발견하고, 이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지진이나 홍수처럼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대피소로 함께 대피할 수가 없대.

왜요? 왜 동물들은 함께 대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우리만 대피하면 슬플 것 같아요. 동물들 대피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게요.

아이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진정한 공감과 연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인간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모두 함께 안전해야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물 대피소를 만들면 어때요?

우리가 만든 동물 대피소



동물 대피소 구성하기



대피소 간판 만들기



곤충들의 방과 먹이 창고



대피소 안 동물병원

한쪽에는 곤충들의 대피소를 만들고, 그 옆에는 동물 대피소인 대피호텔을 만든 아이들은 **"선생님 곤충들이 서로 잡아 먹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방을 만들었어요!", "대피소에 먹이도 있어야 하고 다쳤을 때 치료해주는 병원도 있어야 해요."**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대피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실제 대피소의 모습을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상상력으로 훨씬 더 따뜻하고 세심한 대피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높은 호텔 모양의 대피소, 각 동물을 위한 공간, 병원, 먹이 창고, 휴식 공간 그리고 곤충을 위한 별도의 안전한 공간 등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대피소 안에는 과학적 지식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믿음**과 **각 생명체의 특성을 배려하는 섬세한 마음**이었습니다.

개미(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기!

아이들과 여름 날씨와 옛날 우리 조상들의 여름나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가 오늘날의 여름 날씨가 더 뜨겁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뉴스 기사나 책, 환경교육 경험, 부모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폭염과 홍수, 지진, 산불 등 자연 재난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선생님 이렇게 덥고 홍수가 많이 나면 개미집도 무너지고 개미들이 힘들겠어요!

그러게~ 이렇게 폭염, 지진, 홍수가 더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엄마랑 책에서 읽었어요.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도 대피 훈련하느라 힘들고, 개미랑 동물들도 살기 힘드네요.

그러네. 그럼 지구는 왜 이렇게 뜨거워졌을까?"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래요. 연기도 많이 내뿜고요.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 우리와 동물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개미랑 동물들한테 미안해요.

대피소만 만들면 될까? 우리가 사는 지구도 아프지 않고 안전해야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 교실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미술 활동을 하고 난 후, 무조건 일반쓰레기통에 버렸던 아이들이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을 분리하여 버렸고, 아무 생각 없이 종이를 많이 사용했던 아이도 종이를 조금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플라스틱에 버리는 거 맞아요?

간식 시간, 우유를 다 마신 아이가 우유팩을 물로 씻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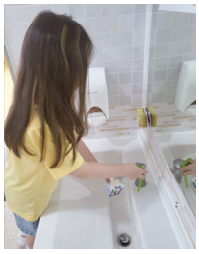
이렇게 해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씻어서 말릴게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따라 했습니다. 급식실에 가려고 교실을 나오는데 교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교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불 끄자.

어느 날 산책 시간, 한 아이가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이거 여기 있으면 개미들이 힘들 것 같아.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저는 이 모습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개미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곳을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해야 한다."는 규칙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실천이었습니다.

개미 대피소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관심이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생태전환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물들한테 미안해요."라는 한 아이의 말에서 죄책감이 아닌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종이 아끼기,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작은 실천**을 스스로 제안하는 아이들을 보며 기후 위기가 먼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작은 개미에서 시작해 **자신의 삶까지 연결**지어 생각하게 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개미야! 안녕? - 삶으로 이어지는 배움

재난대피 훈련 사이렌이 또 울렸습니다. 대피 훈련을 하며 아이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개미들이 대피 훈련하러 나올까?

나오겠지. 이따 밖에서 개미 안 밟게 조심하자! 알았지?



재난대피 훈련



개미에게 인사해요!



개미에게 집을 꾸며줘요.

대피훈련이 끝난 후, 아이들은 개미들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개미를 찾은 아이들은 개미에게 "안녕" 인사를 건네거나, 자세히 관찰하기도 하고, 개미집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먹이를 나르고 있는 개미를 보며 "우와! 진짜 개미 힘이 세네. 개미야 힘내!" 라고 응원해 주고, 모르고 개미를 밟을 뻔한 교사에게 "선생님 조심해요. 아래 개미 있어요. 밟으면 안돼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지요.

이전에도 개미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개미를 더 소중히 대하고 함께 공감하기도 하며 개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얘들아~ 무엇을 하고 있니?

여기 개미집 구멍 보이죠? 개미가 바로 나오면 뜨거우니까 나뭇잎으로 그늘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노란색 꽃잎으로 개미집을 예쁘게 꾸며주었어요.



아이가 꾸민 개미집 그늘막

"개미 안 밟게 조심하자."며 서로를 챙기고, "개미야 힘내!"라고 응원하며, 개미를 위한 그늘막까지 만들어 주는 아이들. 몇 달 전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진심 어린 돌봄**과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한 **"뜨거우니까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라는 말에서 인간의 입장이 아닌 개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거창한 이론이나 활동이 아닌 바로 이런 **일상 속 작은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을 함께 탐구해 나가며, **놀이**를 통해 **그 안에서 나와 나를 둘러싼 더 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해 가는 여정**이 바로 생태전환교육의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발견들을 나누며, 그 안에서 더 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저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생태전환교육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콩이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걸까?

아이들과 카메라, 콩 한알의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

오늘날, 아이들과 교사인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디지털을 생명이 있는 인간과는 구분되는 사물, 자연과는 동떨어진 세계의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경험하며 놀이하는 세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디지털 역시 공기, 햇빛, 물과 흙, 식물과 동물과
함께 이미 아이들이 살아가는 생태환경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나는 디지털은 단순한 학습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삶과 관계를 이루는 또 하나의 살아 있는 세계일까요?
이제 이어질 이야기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속에 존재하는,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딩동아 힘내!

여느 때처럼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한 교실, 한 아이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딩동아 힘내. 힘내라고. 왜 사진이 안 찍히지?
엄청 느려졌어. 이상해. 얘 힘이 없어졌나봐...



카메라가 힘이 없어

딩동이는 우리 반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붙여 준 이름이지요. 딩동이와 아이들의 첫 만남은 봄이 막 시작되던 3월의 교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입한 키즈카메라를 아이들과 함께 처음 조작한 날, 카메라가 작게 '딩동' 소리를 내며 켜졌고, 그 소리를 들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딩동 소리가 어디서났지?
카메라가 켜져서 그래. 딩동 하고 켜졌어.
그럼 이름이 딩동이야? 딩동! 크크.

몇몇 아이들로부터 '딩동이'로 불려지던 카메라는 어느새 반 전체 아이들에게 그저 하나의 디지털 기기가 아닌 우리 반만의 '딩동이'로 불리게 됩니다.
카메라 앞에서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거나 렌즈 가까이에 코를 들이밀며 눈을 크게 뜨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땡동아' '딩동동동똥'이라고 부르며 딩동이를 매일 함께 노는 친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딩동이 어디 있어요? 어제 내 사진 찍은 거 다시 보고 싶어요.

그렇게, 카메라를 통해 하루를 기록하고 친구의 모습을 담아 기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딩동이는 아이들의 생태계 안에 조용히 스며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일상을 기록하는 아이들

언제 어디서나 '함께 보는' 친구


작은 콩과의 만남

햇살이 살짝 기울던 어느 오후, 바깥놀이터 모래바닥에서 한 아이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거 씨앗 아니에요?

그 말에 옆에 있던 아이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작은 손 안에 놓인 것은 둥근 콩 한 알입니다.
그 순간, 다른 아이가 딩동이를 찾아 사진의 한 장면으로 함께 합니다.

딩동아! 콩 발견!
그런데, 콩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아이들은 콩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며, 손에 꼬옥 쥔 채 교실로 조심스럽게 데려왔습니다. 마치 작은 생명을 품은 듯, 손바닥을 열 때마다 숨을 죽입니다. 교실에 도착하여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앞에서 아이들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집을 만들어 줄게. 콩아, 우리 반에서 같이 살자.
이제 잘 자.

아이들의 손가락이 흙 위를 다독이듯 쓸어내렸습니다. 포슬한 흙 위로 콩 알을 살며시 내려놓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에는 설레는 긴장감이 스미고, 곧바로 흙을 덮어 토닥입니다. 아이들은 카메라를 창가로 가져갔습니다. 콩이 앞으로 바짝 다가가 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딩동아, 잘 보여? 얘 이름은 콩이야. 우리 사진 찍어주자.

콩을 처음 발견하고, 화분에 심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딩동이는 그 모든 순간에 이미 아이들과 '콩과 만나 함께 하는 친구'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옮겨주는 경험은 흙과 아이들 그리고 디지털 기록까지 얽히며 더 깊은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콩이 이사가는 날, 기록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작은 콩알은 싹이 돋아나더니 어느새 줄기가 길게 뻗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교실 창가의 화분을 들여다보며 잎의 모양을 살피고 갯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매일 자라나는 콩

오늘은 잎이 세 장이에요.
금요일보다 키가 더 커졌어요.

카메라 속에는 아이들이 남긴 사진과 동영상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순간, 잎이 펴지는 순간, 아이들은 딩동이와 함께 그 모든 장면을 기록하며 자신들의 언어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콩의 줄기가 점점 화분 밖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컵화분은 더 이상 콩이 자라기엔 비좁아 보입니다.

애가 답답해 보여요.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어디로 가지?

더 넓은 곳으로 가야지. 안녕, 고마웠어.



새 화분에 콩을 옮겨심어요 카메라로 기록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목소리는 걱정과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서 가장 넓고 콩이 자라기에 적당한 공간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의 중정을 발견합니다. 모습을 드러낸 얇고 하얀 뿌리. 작은 생명체를 다루는 손길은 여느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새 화분에 자리를 마련하자 아이들은 흙을 한 줌씩 떠 넣으며 말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아.

이제 마음껏 자라라.

한 아이는 카메라에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며 자신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던 다른 아이도 콩이 새집에 가는 날이라며 소식을 전하는 기자 흉내를 내어봅니다. 교사는 지금 이 순간, 작은 씨앗의 성장을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만지며 작은 생명에게도 더 넓은 공간과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고 알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교사의 이야기

아이들은 기억하고 싶은 순간 순간을 카메라로, 태블릿으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기록해냅니다. 디지털 기록은 아이들의 몸짓과 감정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며, 그 순간의 감응을 다시 불러옵니다. 화면 속에 차곡차곡 쌓인 사진과 영상이 단순한 데이터로 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콩과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만남과 감정의 흔적을 오래도록 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자신의 목소리와 손길을 되새기고, 생명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시든 콩이 건네 준 질문

여름 볕이 길게 드리운 어느 날, 아이들은 바깥 화분 속 콩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싱그러웠던 잎사귀는 축 늘어져 있었고, 줄기는 힘을 잃은 듯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콩이가 왜 이렇게 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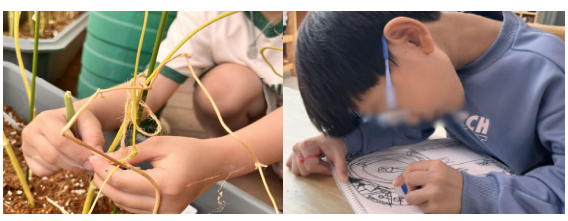
물이 없어서 그랬나 봐.

우리가 안 와서 그런 거지?

잊어버렸다...!

작은 숨소리만 중정을 감돌았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미안함을 읽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새 집으로 옮겨주며 기뻐하던 그 손길이, 이제는 책임감을 되묻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이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시들어버린 콩 설계도를 구상하는 아이

매일 물을 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없을 땐 어떻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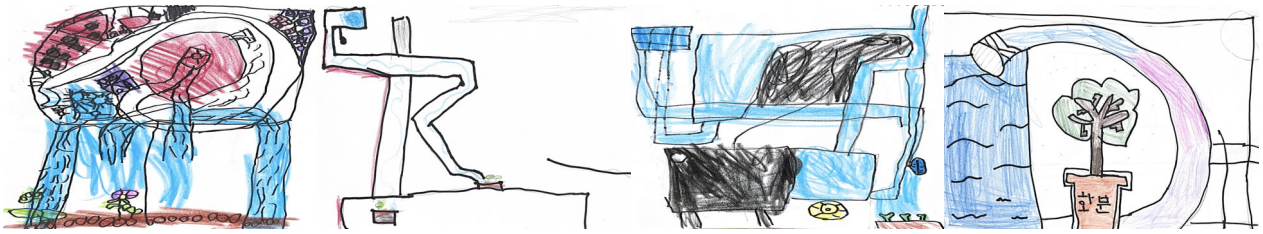
자동으로 물을 줄 수는 없을까?

콩이 목 마를 때 우리한테 신호를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아이들은 시든 콩 앞에서 책임감을 느끼며 동시에 새로운 상상을 키워갔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긴 호스를 연결해 물이 떨어지는 기계, 불빛이 들어오면 “물 주세요.”라는 음성이 나와 알려주는 시스템을 고조된 목소리로 친구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시든 콩이의 모습 앞에서 기꺼이 발명가가 되어 콩이를 돕고자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내려가.
여기에 불빛이 들어오면 콩이가 목 말라서 우리한테 말하는거야.



아이들이 설계한 자동급수기

그리고 아이들의 이 과정을 바라보는 저 역시 ‘우리가 돌본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라는 묵직한 물음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삶을 지켜보고 그 삶을 존중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생태적 삶을 떠올립니다.

시들어버린 콩을 단순한 실패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감응을 불러일으키며, 아이들의 인식 속 돌봄을 새롭게 사유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연은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물음을 건네는 존재”임을 진지한 아이들의 모습과 작은 콩의 생애를 통해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콩이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 순간을 통해 배워갔을 것입니다. 돌봄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려는 태도 또한 돌봄의 다른 이름임을 말입니다.

콩이의 목소리를 듣다

시든 콩 앞에서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물을 길게 연결해보자!

아이들은 수돗가로 달려가 호스를 끌어오며 서로의 손을 이어 붙였습니다. 마치 작은 강줄기를 만들듯 길게 늘어진 호스는,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콩이에게 다다르는 물길이 되었습니다.



팝튜브를 연결해 물을 주는 아이들

강아지는 혼자서 물을 마시는 기계가 있잖아.
우리 콩이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

아이들의 진심에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교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자동으로 습도값을 체크하여 연동된 어플로 알림을 주는 기계를 구입한 것이죠.


식물습도계 설치

우와, 이것봐. 콩이가 물 달라고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대!
그럼 우리가 4층에 있어도 1층에 있는 콩이 목마르다고 말해주는거네?

아이들은 환호하며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의 앱을 통해 알림을 받은 순간,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알림을 받았어요

이거 콩이가 우리한테 보내는 거야?
얘들아, 지금 콩이가 목마르대!

교사의 이야기

아이들의 놀이에서 자연과 디지털은 서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얽혀 서로의 관계를 확장하며 존재합니다. 수돗가에서 놀잇감을 떠올리고 호스를 잇는 상상은 자연의 흐름을 닮은 발명이었고, 강아지 기계를 떠올린 손짓은 일상 경험을 새로운 존재와 연결하는 시도였으며, 디지털 기계의 신호는 아이들과 콩 사이를 이어주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콩을 지키지 못한 슬픔을 디지털과 놀이 속에서 다시 사유하며, 진정한 공존이란 상대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번역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자연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더 섬세하게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도 생태계의 일부로 포섭하는 것. 아이들은 콩을 통해, '진정한 돌봄'이란 존재 간의 감응과 응답 속에서, 즉 함께의 세계를 다시 짓는 과정임을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동화 속에서 다시 숨 쉬는 콩이

힘을 잃었던 콩 줄기가 어느 날 다시 잎을 펼쳤습니다. 축 늘어졌던 줄기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연둣빛이 잎맥 사이로 번져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살아났다!
선생님, 우리 콩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지켜줬어!


콩이 살아났어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쁨만이 아니라, 안도와 놀라움, 그리고 생명의 회복 앞에 선 겸손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손길이 생명을 살렸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생명'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교실로 돌아간 아이들의 화제는 단연 살아난 콩 이야기였습니다.

콩이 목 말랐을 때, 우리한테 신호를 보냈어.
우리가 얼른 가서 물을 줬잖아.
그랬더니 콩이 힘을 내서 다시 살아난 거야.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서 콩은 더 이상 무언의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비를 넘긴 '친구'였고, 자신들의 돌봄에 응답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살아난 콩 영웅'의 이야기는 곧 동화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딩동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던 사진과 영상을 불러내며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흙 속에서 싹이 돋는 순간, 줄기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은 그대로 동화의 장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짓고 직접 그림을 그려 동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고, 목소리로 대사를 불어넣었습니다.

씨앗일 때는 깜깜하고 답답했을까?
얼른 밖으로 나오고 싶었겠지?
새싹이 나왔을 때는 기뻤을거야.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꼭 넣어야 돼.
콩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한테 고마워라고 말했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 콩이 스스로 힘을 낸 거야.

동화 QR




동화를 만드는 아이들

아이들은 그렇게 돌봄을 '내가 주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며 응답하는 관계로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듯 보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성공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주는 감응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에는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 다시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사함이 얽혀 있음을 교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의 이야기

아이들의 동화만들기 과정에서 디지털의 순환적 관계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만든 사진과 영상, 동화와 녹음은 교실 안에 머물지 않고 부모, 친구, 지역사회와 공유되며 더 넓은 생태적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확장은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돌봄과 배려, 감응의 경험이 다시 다른 관계 속에서 재생산되는 순환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동화만들기는 작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식 또한 생태적 상상력과 디지털의 결합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콩이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그림, 그리고 디지털 기록 속에서 생생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콩이를 만난 아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생명을 통해 돌봄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고, 시듦과 회복, 죽음과 살아남음의 경험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자연을 단순히 지켜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응답하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은 단순한 기록 도구를 넘어선 무언가로 존재합니다. 사진과 영상, 녹음된 목소리, 아이들이 직접 만든 동화는 교실을 넘어 부모와 친구, 지역사회로 확산되며 또 다른 생태적 관계망을 이루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아이들이 경험한 감응을 잊히지 않게 하고, 다시 불러오며, 나아가 돌봄과 배려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순환적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이란 '자연을 보호하자'는 일방적 구호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환경이 서로에게 물음을 건네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디지털은 결코 주변부가 아닌, 아이들이 관계를 이어가고 감응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살아 있는 세계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물음에 귀 기울이며, 생태전환교육은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길어 올리는 과정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꽃을 따는 행동은 나쁜 걸까요?

꽃을 따는 행동은 나쁜 걸까요?

나는 늘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꽃은 따면 안 된다'는 규칙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공원에 나갔을 때, 나는 그 규칙이 언제나 옳은가? 하는 의문에 부딪힙니다. 작은 손으로 꽃잎을 쓰다듬고 향기를 맡으며 꽃의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 감각적 경험이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꽃을 꺾는 순간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 중심적 사고를 심어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가 꽃을 딴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돼! 꽃이 아프잖아"라는 말이 먼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문득, 꽃을 꺽지 말라는 규칙이 오히려 꽃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죄책감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나를 붙잡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꽃을 해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 경이롭고 아름다운 존재와 함께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행동' 이라며 말하는 순간, 아이는 자연을 아끼는 마음보다 '혼났다'는 감정만 남게 되지 않을까?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기회를 닫아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듭니다. 결국 나는 경험과 배움 그리고 죄책감 사이에서 매번 갈등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금지만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꽃을 통해 살아 있는 배움을 열어 줄 것인가? 교사로서 답을 쉽게 내릴 수 없기에 나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아이와 꽃,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쁜 옷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와! 꽃이다!" 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 선생님! OO이가 꽃을 땄어요! 야, 꽃을 따면 어떻게 해!

나는 꽃을 들고 있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꽃을 딴 이유를 물었습니다.


: 꽃이 이쁘니까 꽃이랑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대답을 들으며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꽃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마음속에도 자연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 그래~예쁜 꽃과 같이 놀고 싶었구나! OO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네.

 : 근데 꽃이 이쁘다고 꽃을 따도 될까?

 : 맞아요! 꽃을 꺾으면 꽃이 아파요.

 : 꽃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못 봐요.

 : 꽃은 벌이랑 나비의 집이에요.

 : 꽃이 다치지 않게 놀아야 해요.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신만의 꽃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 아이들은 이미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 그래! 다들 좋은 말들을 해주었네. 아마도 OO이는 꽃이랑 함께 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

 : 꽃을 따지 않고 함께 꽃이랑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떨어진 꽃을 주워요.

 : 눈으로만 봐요.

 : 냄새만 맡아요.

 : 오, 좋은 생각이네!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꽃도 벌도 나비도 우리와 같이 사는 생명이니까 다치지 않게 서로 조심해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 몇 명의 아이들은 떨어진 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 선생님! 꽃으로 옷을 꾸미고 싶은데 자꾸 떨어져요.

한 명의 아이는 떨어진 꽃을 이용하여 자기 옷에 붙여서 옷을 꾸미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 그럼 우리 유치원에 가서 함께 모은 꽃으로 옷을 만들어 볼까?

 : 좋아요.

떨어진 꽃을 주워서 유치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 선생님! 저도 OO이처럼 저 꽃 갖고 싶어요.

그러자 다른 몇 명의 아이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순간 교사인 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꽃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꽃을 꺾어 소유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과 생태전환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꽃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다른 아이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 꽃 한 개씩만 따보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꽃의 주인은 누구일까?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가 원한다고 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꽃은 우리와 함께 사는 친구니까. 그러면 꽃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니?

 : 너랑 놀고 싶어.

 : 꽃은 말을 못하는데 꽃도 너희랑 놀고 싶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꽃이 고개를 끄떡이면 돼요.

: 위아래로 흔들면 놀고 싶다는 거고, 옆으로 흔들면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연과의 대화는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그래, 그럼 꽃에게 함께 놀고 싶은지 물어보고 1개씩만 따보도록 하자!

저마다 꽃 한 개씩을 따온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 꽃에게 인사는 했니?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

: 함께 놀아줘서 고마워.

: 반가웠어.

: 예쁜 옷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꺾지 않기'라는 단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마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유치원에 돌아오기 전에 꽃에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치원으로 돌아와 커다란 종이 드레스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떨어진 꽃과 한개씩 따온 꽃을 이용하여 드레스를 꾸몄습니다.

: 진짜 드레스 같아요.

: 저도 입어 보고 싶어요.

꽃을 붙여 완성한 종이 드레스를 아이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박수를 치며 "공주님 같다!" "꽃 향기 드레스예요!"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하지마' 대신 '고마워'를 배웠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가 아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교육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꽃 드레스 만드는 모습



완성된 꽃 드레스 입기



남은 꽃으로 꽃 화병 만들기

고민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아이들에게 단순히 규칙을 알려주고 지키게 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꽃을 따는 행동을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꽃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 자연을 가까이 느끼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존중하고, 꽃을 아끼는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더 깊은 배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와 공감에서 싹틉니다. 교사인 나 역시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고 길을 찾아가는 동반자임을 깨닫습니다. 꽃을 대하는 작은 순간 속에서 아이들은 생태적 감수성을 배우고, 나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교사의 이야기

앞으로 나는 아이들이 꽃과 자연을 대할 때 단순히 금지와 규칙만을 강조하지 않으려 합니다. 꽃을 따고 싶은 마음 속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존중하고 함께 다른 길을 찾아가려 합니다. 아이들과 꽃은 동등한 친구처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너는 꽃을 꺾어서 유치원에 가져가고 싶은데 꽃도 그걸 원할까?", "꽃은 너와 어떻게 놀이하고 싶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최선의 답을 찾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교사로서 나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손 안의 작은 친구, 양말목 꼬불이



"새 양말목을 사서 놀게 하는 것. 과연 진짜 생태전환교육일까?"

유치원에서 자원순환교육의 일환으로 양말목 직조놀이를 진행하며,
새로 구입한 알록달록 양말목을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던 순간, 저는 이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소비가 아닌 관계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놀이와 공존을 통해
진짜 생태적 감수성을 배우는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남겨진 양말목이 던진 질문



자료실 구석, 상자에는 작년에 사용하려다 남겨둔 양말목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며 상자를 열자, 알록달록 화려한 색의 양말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려면 알록달록 예쁜 양말목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양말목으로 재활용 만들기를 하면 아이들이 재활용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곧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양말목을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생태전환교육일까?
새로 구입한 양말목으로 교육하는 게 진짜 생태전환교육일까?
아이들에게 자원을 쉽게 구입하고 쉽게 버려도 된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닐까?



그때 마음 한 켠이 불편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재료를 소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 속에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이 드는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쁜 재활용을 멈추고 진짜 생태전환교육을 시작하는 이야기

이야기 흐름



아이들과 양말목이 만나다

많은 양말목이 담긴 상자를 들고 교실로 가져왔습니다. 먼지를 털어 상자를 열자, 알록달록한 색깔의 양말목들이 한가득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양말목의 탄생

선생님, 이거 뭐예요?

우와! 선생님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알록달록하면 더 예쁘고 멋있어!

아이들이 단지 색의 예쁨만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우리가 양말목을 가지고 놀이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양말목은 어디에서 왔고,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양말목을 단순한 놀이 재료로 소비하는 대신, 우리 곁의 물건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다시 새로운 용도로 함께하는 지난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생태적 선택의 의미를 배워가는 기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양말목이 만들어지는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기사를 찾아보며 양말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양말목은 양말의 윗부분을 잘라서 만든 거예요?

양말목은 왜 버리지 않고 모아 두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거구나!



아이들과 함께 본 기사 한 편에는 유치원, 학교, 지역 센터에서 예쁜 알록달록 양말목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양말목을 사기 위해 일부러 양말을 잘라 파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알록달록한 양말목을 사서 쓰고 있대요.

양말을 일부러 만들고 잘라서 또 파는 거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공장에서 더 많이 만들겠네요?

그러면 양말목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쓰레기도 늘어나겠네요.

예쁜 색깔의 양말목을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만든 양말목이 더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 신던 양말로 만들면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재활용을 위해 쓰던 양말의 양말목을 갖고 놀이하려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러 양말목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것을 사서 놀이한다는 것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주변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로 새 양말을 자르고, 소비하고, 버리는 일의 의미를 자신의 언어로 이해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양말목 친구라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것보다, 우리가 만든 게 더 특별해요!

우리 양말목 친구랑 놀이를 만들면 좋겠어요!

관계를 다시 잇는 배움 - 생태전환교육의 길 위에서

아이들과 양말목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생태전환교육이 단순히 재활용을 실천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전에 함께 했으나 필요가 없어진 사물과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눈앞의 재료를 새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는 사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다시 바라보는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생태감수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화려한 양말목의 색보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묻기 시작했고, 저는 그 질문 속에서 **생태전환교육의 본질이 지식이 아닌 성찰과 실천임을 배웠습니다.** '더 예쁘고 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우리 곁에 있는 것과 다시 관계 맺는 일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삶을 가르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로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태적 감수성을 배우는 동행자**로서, 삶과 놀이 속에서 작고 느린 변화의 가치를 함께 길러가야 함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양말목 친구 '꼬불이' 탄생

아이들은 자신이 신던 헌 양말, 목이 늘어난 양말, 짝이 없는 양말을 하나하나 꺼내 들고 잘라서 양말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만들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양말목을 친구로 느끼고 나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양말목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며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양말목을 만드는 아이들

이거 내 양말이야! 이제 잘라서 친구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 이거 우리 신던 양말이에요!

저는 목이 늘어난 양말로 만들래요. 이 친구는 아주 길쭉하네요.

짝이 없는 양말을 자르면 새로운 친구가 태어나겠어요!

나는 이 양말로 원숭이 꼬리를 만들 거야!



아이들은 집에 있는 옷장 속, 혹은 오래되어 더 이상 신지 않는 양말을 떠올리며,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양말을 새로운 놀이 친구로 탄생시키는 과정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자기가 신던 양말에 신문지를 넣어 원숭이 꼬리를 만들어 정글놀이를 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고 양말을 잘라 양말목을 만들며, 다른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기가 신던 양말로 윈숭이 꼬리를 만드는 아이들

선생님, 이 양말목은 제가 매일 신고 놀던 거라서 특별한 친구에요!, 이름은 '반짝이'로 할래요!

이 양말목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딸기 그림이 그려진 양말로 만든 거라서 딸기로 지었어요!

내가 만든 양말목으로 팔찌를 만들었어요!

양말목을 연결했더니 줄넘기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양말목 친구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양말목은 단순한 재료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양말목 친구는 단순한 놀이 도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과 지구와의 공존을 배우는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말목 친구 꼬불이와 만난 아이들

양말목 '꼬불이'와 함께 만드는 놀이 세상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양말목에 더 관심을 가지며, 양말목 꼬불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불이를 길게 만들어서 줄다리기 할래요!

꼬불이를 연결해서 다리 만들고 거기로 걸어 갈래요!

꼬불이를 밟지 않게 조심해야 해! 아프잖아!

난 꼬불이랑 같이 미끄럼틀을 타야지! 꼬불이가 나보다 더 빨라!"

꼬불이로 끈을 만들어 썰매를 타보자!





양말목 친구 꼬불이와 신나게 노는 아이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같이 놀이하는 동등한 존재의 친구로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꼬불이는 이제 더 이상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양말목을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친구로, 우리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친구로 받아들였고, 놀이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 장면에 함께하는 저는 아이들이 친구가 된 양말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양말목이 그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 우리와 놀이를 함께하는 행위주체성을 지닌 물질로 바라보는 시각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이들, 그리고 양말목 : 생태전환적 가치를 돌아보다"

지금까지 저는 생태전환교육을 말하면서도, 정작 눈앞의 편리함과 눈에 보이는 효과를 먼저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아이들에게 '재료는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생태전환적 가치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거나 재활용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함께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사물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양말목 친구를 만나고, 이름을 붙여주고, 놀이를 창안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비로소 **'생태전환교육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존중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상상하며 놀이할 때 진정으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단순히 예쁘고 새로 산 재료에 의존하지 않고,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놀이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양말목 친구를 통해 시작된 이 작은 실천이, 아이들에게 자연과 사물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저 또한 교사로서 매 순간 생태전환적 가치를 실천하며 배우고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 잊혀진 자동차 장난감 전시회

양말목 친구 꼬불이와의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교실이나 집에서 잘 가지고 놀지 않거나 고장나서 잊혀진 자동차 장난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 바퀴가 사라진 자동차, 낡아서 잊어버린 자동차까지 이제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잊혀진 친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친구들로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이 놀 수 있을까요?

저 자동차는 바퀴만 붙이면 다시 신나게 놀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자동차 장난감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관찰하며, 왜 버려졌는지, 어떤 부분이 아픈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동차에게 풍선모터를 달아줄거야! 그럼 엄청 빨라지겠지?

바퀴를 붙여서 다시 같이 놀이하고 싶어요!

나는 집에서 가지고 놀지 않는 자동차를 꾸며서 멋진 자동차로 변신 시킬거야.

아이들의 손으로 자동차 장난감을 고치거나,
다른 재활용품과 합쳐서 새로운 놀이 친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붙이고, 놀이 규칙도 함께 정하며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다시 만든 자동차를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동차 친구, 이제 우리랑 놀 준비 됐지?

응! 이제 우리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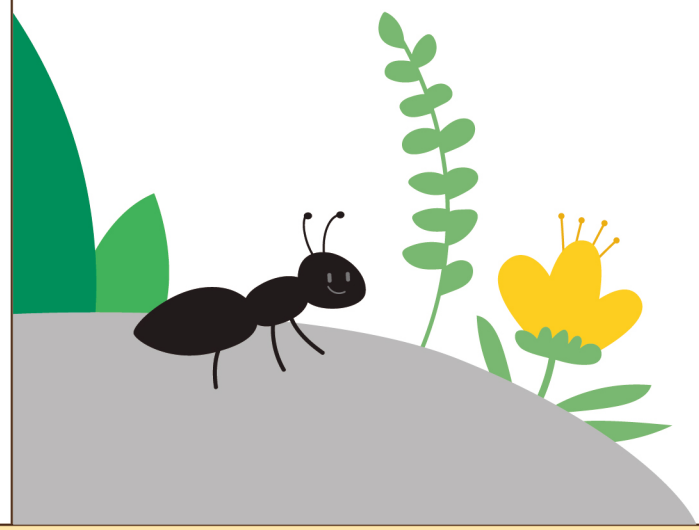


마침내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장난감 친구들을 모아 “다시 태어났어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각자 친구의 이름과 이야기를 소개하고, 놀이 방법과 친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관람하는 친구들은 각 장난감이 살아난 과정을 상상하며, 새로 쓰임의 가치와 창의적 놀이의 즐거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단순히 놀이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주변에 있는 것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깨닫는 생태전환교육의 의미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친구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느끼고, 서로의 자동차 장난감 친구를 존중하며 감상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장 나거나 잊혀진 장난감을 스스로 관찰하고 변형하며 놀이 친구로 재탄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생태전환교육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주변 자원과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교육**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사물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재료를 소비하는 대신 **존중과 창의적 활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놀이 규칙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는 경험은 **물질을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작고 느린 변화를 통해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행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지속가능한 삶과 놀이 속에서의 생태적 선택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II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실천역량 기르기

1. 함께 살아갈 권리 - 동물과 우리
2. '먹기 싫으면 남겨도 될까요?'
3. 팜유에서 시작된 먹거리 고민
4. 장난감 없이 놀아보자!

◆ 앎이 삶이 되기 위한 생태전환적 교사 되기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알게 된 순간을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해합니다. 나아가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배움이 삶과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생태전환교육은 앎이 삶으로 적극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전환적 실천이 무엇보다 교사인 나의 삶과 0교육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앎과 삶이 일치하는 생태전환적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앎과 삶이 연결된 배움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생태전환교육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뉴스와 보도를 통해 비가 오지 않아 사막화되어 가는 지역이 있고,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재난을 경험하는 지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된 산불로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황폐화된 모습을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류가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동의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적인 변화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행동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하려고 하면, 실천해야만 하는 이유가 필요하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태전환교육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모아보았습니다.

◆ 생태전환교육의 가치는 무엇인가?

생태전환교육의 전환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의미하므로 '전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단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자연을 존재하는 그 자체로 보존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천역량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교육에서의 실천역량이라는 것은 가치, 태도 등을 말합니다. 생태전환적 교사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실천역량에 대해 고민하던 교사인 내가 먼저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 알고, 느끼고, 행동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공존의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느낀다는 것은 생태계 속 인간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고, 관계를 지어보는 과정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알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에피소드를 통해 생태전환적 실천역량을 길러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 함께 살아갈 권리 - 동물과 우리

〈알기 - 생태전환적 시각으로 고민하기〉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유치원은 주변에서 축사를 발견하기 쉽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나는 생태전환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전 〈사람에게 유용한가, 아닌가〉의 잣대로 동물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은 지구를 독점하는 주인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나누어쓰는 공동 거주자'라는 관점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느끼기 - 자연을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성찰하기〉

둥지나 흙 또는 풀 위에 놓인 달걀이 아닌 상자 안에 가지런히 담긴 달걀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나는 물었다. "이 달걀은 어디서 왔을까?"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던 아이들은 "마트에서요!", "엄마가 사 왔어요!" 하고 대답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과 닭고기 뒤에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았다. 좁은 철망 속에 갇혀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는 닭들, 햇살을 쬐거나 흙을 쪼아보는 기회가 없이 그저 살아가는 닭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닭의 행복한 삶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교실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이 닭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였다. 유치원 텃밭에서 지렁이가 흙을 갈아엎는 모습을 관찰하며 "닭도 이런 벌레를 좋아해"라고 말하였다. 아이들은 금세 닭과 다른 동물들의 관계에 대해 연결짓기 시작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닭은 어떤 닭일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날, 먼저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닭을 그려보도록 했다. 아이들은 흙을 파헤치며 좋아하는 벌레를 잡아먹고, 햇살을 받으며 높은 곳에 올라가 "꼬끼오~" 맘껏 소리치고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을 종이 위에 그렸다.



생태계의 다양한 모습과 연결짓는 순간, '행복한 닭'이 인간의 입장이 아닌 닭의 입장으로 조금 더 다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행동하기 - 삶 속에서 작은 실천 이어가기〉

소비자로서 나의 소비가 동물의 권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찰하게 된 나는 달걀을 살 때 '동물복지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내가 하게 된 실천을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어느 아이의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다. "선생님, 우리 00가 동물복지 인증 표시가 있는 달걀을 사야 한다고 하네요. 어려운 말인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면서요." 생태전환교육을 하는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교사의 작은 질문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자극한다. 아이의 놀이와 일상생활에 귀 기울이며, 적절한 순간 아이들에게 동물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질문을 던져 무분별한 소비 뒤에 감춰진 생명의 이야기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생태전환교육의 시작이 아닐까. 교사로서 나의 역할은 아이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감수성을 기르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피소드 2. '먹기 싫으면 남겨도 될까요?'

〈알기 - 생태전환적 시각으로 고민하기〉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라면 '소중한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칭찬 스티커나 미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음식 취향이 확고한 편이기도 하거니와, 교사로서 급식에 대한 민원을 받기보다는 그저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안 먹어본 건 한 번씩만 도전해 보자.'라는 말로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나는 억지로라도 다 먹게 할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가 늘 갈등한다. 그런데 음식의 재료를 살펴보고 그 과정을 관찰하면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 음식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느끼기 - 자연을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성찰하기〉

오늘의 점심식사 메뉴를 소개해줄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소중한 생명들이 있다는데, 어떤 것들일까? 메뉴와 재료를 살펴보자.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나누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었고, 살아있던 것들로 만든 음식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이었다. 아이들은 "점심에 매미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꿈틀대는 지렁이 같은 게 들어있으면 어떡해요?"라는 상상을 펼치며 한참을 즐거워했고, "살아있는 생명이었지만,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를 주기 위해 음식이 되어준 생명도 있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한 끼의 식사 속에 포함된 많은 생명의 원래 모습을 여러 차례 알아보았다.

'텃밭을 기억해 봐, 채소도 생명이었어!'

우리 유치원은 텃밭 작물을 꾸준히 심고 가꾸고 있다. 지난 봄에 텃밭에 다양한 작물들을 심고 바깥놀이 시간마다 "상추야 사랑해! 잘 자라라!"라고 응원하며 물을 줬던 기억, 상추와 오이, 방울토마토 등을 수확해서 먹었던 기억을 회상하며 '채소도 생명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가 먹는 밥도 누군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심고, 가꾸고, 수확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벼의 생명에게도 감사해야 하고, 벼를 키워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도 아이들은 공감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더 쉽게 깊은 공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동물의 윤리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가축의 생명'

이 날의 점심식사 메뉴는 '소고기무국'. 소고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자 아이들에게 '우리가 먹기 위해 동물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다가온 듯했고, 이를 낯설게 느끼는 아이도 있었다. 나는 단순히 '인간이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인다.'라는 일방적인 희생의 모습이나 인간의 죄책감으로만 느껴지지 않도록, 자연의 먹이사슬과 생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함께 느껴보자고 이야기를 건넸다.

아이들은 처음에 소가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사람들이 나쁘다는 말도 하며 소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다가도 금세 "근데 돈가스랑 치킨은 너무 맛있는데!"라고 말하며 생명을 먹는다는 사실과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아이들과 소, 돼지, 닭 등의 동물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지, 어떤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한 동물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대화들을 통해 윤리적인 환경이란, 동물을 단순히 먹거리로만 보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깨끗한 곳에서 지내고, 넓은 곳에서 뛰어놀며, 아플 때 치료받는 삶이 바로 동물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닭이 넓은 곳에서 지내면 좋겠어요.", "소가 풀밭을 뛰어다니면 좋겠어요." 등의 이야기를 했고, 식사를 할 때는 고마워하며 먹자는 약속도 만들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되어준 고마운 생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하기로 약속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느낀 슬픔과 미안함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감사의 태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잘 먹어보자."라고 이야기했다. 평소보다 많은 아이들이 밥을 더 골고루, 남김없이 먹으려 노력했다. 식사를 마친 뒤 정리하기 전,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준 많은 식재료와 음식을 만들어 준 조리사님들에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게 영양분을 나눠주어서 고마워!", "고마운 생명으로 소중한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행동하기 - 삶 속에서 작은 실천 이어가기〉

생태전환교육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내 삶에도 그냥 넘어가 지지 않는 것들이 생겼다. 난각번호 1, 2, 3, 4번이 의미하는 것, 전에는 우리집이 난각번호 몇 번의 달걀을 먹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난각번호라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살았다. 생태전환적 사고를 하며 나는 난각번호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몇 번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닭이 낳는 알인지 알게 되었고, 난각 번호가 의미하는 사육환경으로 인한 동물의 삶, 그리고 이로 인한 동물의 행복과 이와 연결된 나의 삶을 알고나니, 더 이상 4번의 달걀을 선택할 수 없었다.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선택하는 일, 나는 일 년에도 몇 번씩이나 감기에 걸려 항생제를 주사로 맞고, 약으로 복용하며 지내면서도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돼지가 항생제를 맞으며 살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내가 먹는 돼지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돼지고기는 그저 맛있고 익숙한 식재료일 뿐, 내가 먹는 동물이 맞는 항생제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며 단순한 지식의 습득만이 아닌, 경험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며 내가 선택한 생태전환적 실천의 이유와 그렇게 선택하기까지 사유의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알아야 한다, 해봐야 한다, 그리고 나누어야 한다.'

교사가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아야 한다. 생활 속에서 어떤 점들이 생태전환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지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른 교사들과 나눈다면 더 많은 원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생태전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공감을 얻으며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인상깊었다. 시간이 지나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는 횟수가 거듭되며, 생태전환교육은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생태계 속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등 삶의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키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유치원에서 가르쳐야할 가치는 너무나도 많지만, 생태전환교육이야말로 생명에 대한 존중,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배려,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협력 등 아이들이 삶의 주인으로, 민주시민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담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에피소드 3. 팜유에서 시작된 먹거리 고민 🍩🍪

〈알기 - 생태전환적 시각으로 고민하기〉

삶을 생태전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변화의 정도를 넘어 위기, 그리고 지금은 재난에 가까운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 일부만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력감은 가끔 '나 하나 실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나는 '나 하나'가 아니었다. 교사인 나의 전환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아이들과 그 가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가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앎을 배움의 과정으로 다시 싹트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긴다.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생각해보니 그동안 열심히 했던 환경교육은 인간중심적 사고와 영웅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구를 지켜줄게."라며 자연보다 우위에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생태전환적 사고로 바라보니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기 전에 지구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이 당연스럽게 나의 일로 생각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느끼기 - 자연을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성찰하기〉

내가 선택한 먹거리는 누군가의 생명이다.

우리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과자다. 유치원에서는 시장놀이, 캠핑놀이, 운동회 등 행사가 있을 때 마다 과자를 준비한다. 학급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고 그 내용을 각색하여 영화관 놀이를 계획했을 때, 이번에도 아이들은 과자와 음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들은 저마다 먹고 싶은 과자를 이야기했고, 우리는 인터넷을 활용해 우리가 선택한 과자들의 성분표를 확인해보았다. 과자마다 원재료는 다르지만 단 한 개의 과자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한 가지, 바로 '팜유'였다. '식물성유지'라고도 적혀있는 팜유는 과자나 라면을 만들 때 필요한 성분이다. 팜유가 궁금해진 우리는 영상과 책을 통해 팜유를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숲을 베는 것을 보았고, 이 과정에서 오랑우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더 깊이 알게 되며, 그 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 그동안 생명이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육류만을 떠올렸는데, 우리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무심코 선택한 팜유 과자로 인해 목숨을 잃는 생명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더는 팜유가 들어있는 과자를 먹고 싶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팜유가 들어있지 않은 과자가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알아보았고, 지역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노팜유 과자를 구매하여 교실로 가져오게 되었다.

지구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다.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자연은 먹거리라고 생각한다. 먹거리는 아이들의 삶과도 밀접하며, 어떤 것들보다 기후나 이로 인한 물,땅,공기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개인의 웰빙과 행복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팜유 과자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반은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먹거리로 지구와 나의 거리 좁히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제철 음식을 찾아보게 되었고 제철 달력 만들기 활동으로 이어졌다. 아이들과 제철 달력을 보면서 봄에는 냉이와 달래의 향을 맡아보았고, 여름에는 오디잼을 끓였으며, 가을에는 고구마로 놀아보았다. 6월에 함께 담근 매실청을 100일이 지난 9월에 꺼내었을 때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매실청은 맛있어서 다 먹었는데 남은 열매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아이들은 매실청의 마지막 산물인 남은 매실과육까지 남김없이 먹어야겠다고 한다. 정제된 액체만 담겨있는 매실청을 사서 먹었을 때는 알 수 없었다. 직접 만들어보니 먹거리의 탄생과 끝맺음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전환교육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를 희생해 지구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우리가 제철음식을 손수 요리해 먹고, 온라인 배송보다 로컬푸드 장터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했을지라도 이는 곧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함이었으며, 이에 대한 산물로 채식 선택과 탄소발자국의 저감을 가져왔으니 자연과의 상생이 되었다. 우리는 왜 자연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주체적인 건 인간이라고만 생각할까?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기만 한 걸까? 그렇지 않다. 지구를 위하는 마음은 곧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고, 이는 곧 개인의 행복이며 공동의 가치로 선순환됨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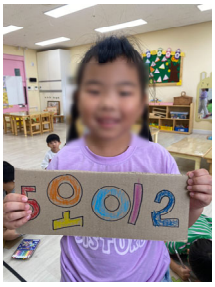
〈행동하기 - 삶 속에서 작은 실천 이어가기〉

일상 속에 생태감수성이 담겨지다.

유치원에서 시장놀이를 할 때, “우리 반은 어떤 것을 팔면 좋을까?” 물으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 들리는 한 아이의 목소리. “장난감을 팔면 새 물건을 또 사는 거잖아. 우리는 건강한 과일이랑 채소를 팔자.”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동의한다. 장은 어디에서 봐오면 좋을까 물으니 직접 기른 걸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직접 기른 작물은 지금 다 수확되어 팔 수 있는 게 얼마 없다고 하니, 로컬푸드 상점을 이용하자고 한다.

교사가 직접 장을 봐온 과일과 채소의 원산지를 함께 확인해 본다. 모두 국내산이었다. 아이들은 어려운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배워온 과정을 떠올리며 내가 사는 먹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느낀다. 조금 투박해 보일진 몰라도 버려진 폐박스로 품목과 가격을 적고, 장바구니는 가정에서 준비해 와서 제로웨이스트 시장놀이를 연다. 우리가 사고 판 가지, 양파, 오이, 팽이버섯, 고구마는 가정연계 요리 활동으로 이어졌다.








생태전환교육 실천역량은 반복과 성찰, 나눔의 과정이다.

생태전환교육은 모든 아이들을 그레타 툰베리로 만드는 교육이 아니다. 모두가 환경운동가가 될 수는 없고, 나 역시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하길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생태전환교육을 하는 교사는 배워서 알고, 깨달아서 혼자 실천하고, 실천해서 평가하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고, 확장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반복해야 한다. 아직도 교실 속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할 때면 ‘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친 것이 맞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은 반복되며 끊임없는 성찰과 생성의 과정을 거치며 나의 실천역량은 더욱 단단해진다. 또한 내가 하는 고민의 과정을 혼자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에피소드 4. 장난감 없이 놀아보자!

〈알기 - 생태전환적 시각으로 고민하기〉

언젠가부터 교실은 다양한 교구과 장난감, 일회용 만들기 키트들로 가득 차 있다.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더 많은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 더 좋은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확신 속에서 과도하게 준비된 교재교구, 놀이 자료들로 교실을 채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고민은 시작되었다.
"이것들이 오히려 놀이의 방향과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많지 않은 재료로도 충분히 잘 놀 수 있으며, 아니, 오히려 놀이의 목적이 없는 비구조적인 자료일수록 더 오래, 더 깊이 놀이를 이어간다. 상자 하나가 집이 되었다가, 자동차가 되었다가, 우주선이 되기도 하고,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언어가 되고 관계가 되는 순간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풍족한데도 더 새로운 것을 쫓고 있었을까?

더 좋은 교구, 더 복잡한 활동, 더 많은 만들기 키트가 '놀이중심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무비판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소비, 관계의 방식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되었다. 생태전환교육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놀이' 속에서 다시 질문해 보기로 하였다.



얘들아 오늘은 '장난감 없는 날'로 마음껏 놀아보면 어떨까!!

〈느끼기 - 자연을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성찰하기〉

장난감 없는 특별한 날을 하기 전,

우리가 사용하는 장난감, 특히 플라스틱이나 장난감들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음, 잘 모르겠어요. 버리면 쓰레기통으로 가요.

우리 교실 만들기 키트처럼, 한 번 만들고 나서 그냥 버려지는 것들도 많지?


네, 그런데 만들어서 가면 우리 엄마가 그냥 버려요.


만들고 버려지는 장난감, 만들기 작품들이 아닌 놀이를 해보자.


어떤 놀이요?


옛날에는 놀잇감이 없어도, 자연 속에서 돌멩이, 나뭇가지, 친구들과의 이야기만으로도 신나게 놀았단다.


장난감 없이 놀이를 해볼까?

아이들은 처음엔


장난감 없으면 심심해요.


장난감이 없으면 어떻게 놀이를 해요?

하며 걱정을 했다.

한 아이가 “장난감 없이도 놀 수 있어.”라는 말에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생각 하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장난감 없이도 놀 수 있어.


음, 그럼 ‘얼음땡’도 할 수 있어.


몸으로 할 수 있는 놀이도 있어요.


몸? 몸으로 어떻게 놀이를 할 수 있니?


율동이요.


그래 율동도 할 수 있구나. 친구와 함께 ’아침바람 찬바람에‘ 노래를 부르면서 손놀이를 할 수도 있단다.


솔방울, 돌멩이, 나뭇잎과 같은 자연물로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자연물? 솔방울 던지기


도토리 숨바꼭질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장난감이 없으면 놀이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던 아이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난감 없이 할 수 있는 놀이를 하나둘씩 떠올렸다.

자연물과 몸, 말,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한 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직접 놀이로도 경험해 보았다. 이 날의 교실은 조용한 플라스틱 소리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과 움직임, 규칙을 만들어가는 토론으로 가득 찼다.



'교사가 교재교구, 장난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놀이는 다양하고 풍성할 수 있구나.' 그날, 나에게는 커다란 전환의 순간이었다.

〈행동하기 - 삶 속에서 작은 실천 이어가기〉

생태전환교육은 단순히 자연과 가까워지는 활동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질문을 던지고, 놀이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소유하고, 소비하라고 요구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교사인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수업의 편의성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 대량의 만들기 키트를 준비해 똑같은 활동을 반복한 적도 있었으며 그 결과물은 놀이가 아니라 형식적인 과제에 가까웠고, 아이들의 손을 떠난 뒤에는 재활용조차 어려운 쓰레기로 남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질문하게 되었다.
"이게 정말 놀이였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 활동을 준비했을까?"
그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는 '장난감 없는 날'을 실천해 보았다. 준비된 장난감과 교구 없이, 아이들이 주변의 자연물, 재사용 가능한 재료,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 놀이를 만들어보았다. 놀랍게도 그 날은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시각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다. 자연과 관계,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깊고 풍부한 놀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다.
생태전환교육은 거창한 실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삶 속에서 '무엇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놀이를 통해 작게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태전환교육의 시작이며, 교사로서 내가 계속 이어가야 할 작은 실천임을 강조하고 싶다.

III



가정·지역으로 스며드는 생태전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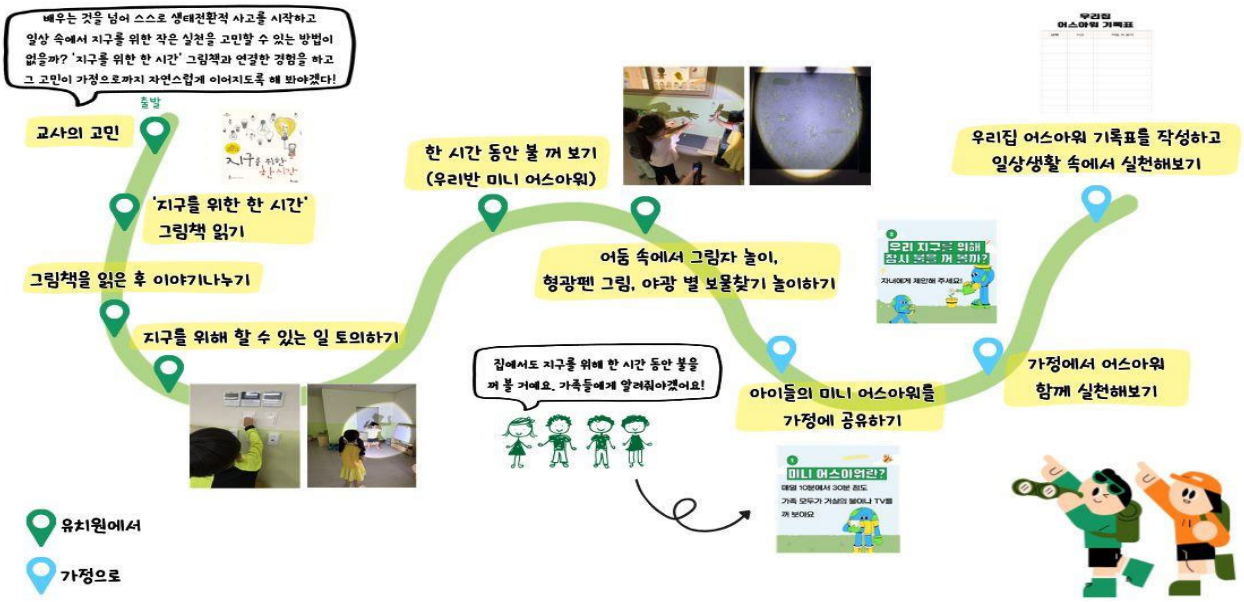
1. 생태전환교육,
‘그림책’으로 삶과 가정에 스며들다
   1) 지구를 위한 1시간
   2) 내일의 동물원
   3)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2. 생태전환교육,
‘진정한 아나바다’로 삶과 가정에 스며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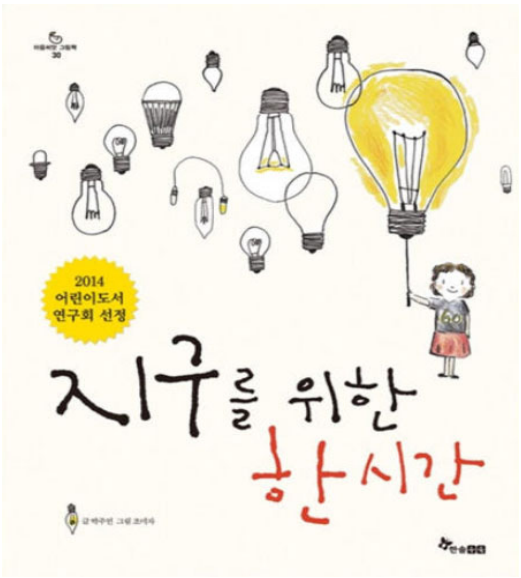
3. 가정과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에세이로 담다
   1) 이제 그만 사겠습니다
   2) 습관이 되니 불편함이 뿌듯함으로 느껴지는 생태전환교육
   3) 작은 손수건, 큰 변화
   4) 아이와 함께 시작하는 작은 변화, 생태전환교육
   5) 생태전환교육, 우리 함께 해볼까요?
   6) 우리 아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생태전환교육
   7) 자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태전환교육의 동반자로 서다

생태전환교육, '그림책'으로 삶과 가정에 스며들다!

어스아워, 가족과 함께 만드는 지구의 쉼표



그림책 소개 1



"한 시간 동안의 작은 불 끄기가 지구에
얼마나 큰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도서명: 지구를 위한 한시간

- **글:** 박주연
- **그림:** 조미자
- **출판사:** 한솔수북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빛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단 한 시간을 통해 온 세상의 불이 꺼지고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지구의 숨소리를, 그리고 이 작은 손들이 모여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사랑의 기적을...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생각의 전환!

어스아워에 동참하는 아이들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빛 공해 없는 밤하늘을 상상하고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두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지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체험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된답니다. 이 책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삶의 전환을 아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 그림책과 함께하는 교실 속 생태전환교육 이야기

'지구환경'이라는 주제가 너무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일년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불을 끄고 지내는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아이들이 교실 불빛을 잠시 끄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작은 행복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이로 인해 지구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감각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지구를 살리자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임을 아이들과 함께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교사가,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실 속 생태전환교육] 이렇게 해 볼 수 있어요



'지구를 위한 한 시간' 그림책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지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림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 시간 동안 불을 꺼 보면 어떨까?

불을 끄고 동화 속 장면처럼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것들이 보여? 어둠 속에서는 발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불을 끄니 어둡잖아, 손전등을 가지고 오자!

그림자다! 그림자 놀이다!

이 형광펜으로 그리면 어두워도 잘 보여!

맞다, 그림책에서도 불이 꺼지니까 깜깜한 곳에서 별이 선명하게 보였잖아, 우리도 해 보자!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을 찾아보는 보물찾기를 해 볼까?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배움

환한 도시 속에서 '지구를 위한 한 시간' 동화를 읽은 우리 아이들은 불을 끄고 깜깜해진 교실에서 세상의 다른 소리를 들어보고, 어둠 속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불 끄기 행동이 지구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구나! 우리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함께 불을 꺼 보면 좋을 텐데! 아이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작은 행동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가정에서도 이 특별한 '지구를 위한 한 시간'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유치원에서의 생태전환적 경험을 가정으로 확장하여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지구를 위한 한 시간'의 작은 대장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정연계] 이렇게 해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한 시간' 그림책을 읽으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구와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그림책 속처럼 교실의 불을 잠시 끄고, 특별한 '미니 어스아워(mini earth hour)'를 가져보았는데요. 아이들은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무척 신기해했답니다. 이렇게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이했던 '어스아워'를 가정에서도 이어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림책의 메시지를 담아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지구 지킴이' 미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카드뉴스 바로 사용하기

- **"우리 지구를 위해 잠시 불을 꺼볼까?"**라고 자녀에게 제안해 주세요!
- 유치원에서 했던 것처럼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에서 30분도 가족 모두가 거실의 불이나 TV를 꺼보는 거예요. 깜깜함 속에서 그림책 속 친구들처럼 창밖의 밤하늘을 함께 보고, 손전등을 비춰 그림자 놀이를 하거나,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기, 책 속의 재미있었던 장면을 다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기가 없어도 함께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구 사랑과 소소한 행복을 심어줄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이와 함께 '지구 지킴이'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로 생태계 확장하기

[지역사회연계] 이렇게 해 볼 수 있어요	
지역 도서관/ 작은 책방 연계	• '지구를 위한 한 시간' 그림책의 메시지를 알리고, 아이들이 그린 에너지 절약 마크를 지역 도서관, 작은 책방 등에 전시하기 • **도서관 협조**: 지역 도서관에 연락하여 '환경의 달' 등에 맞추어 전시 간 요청하기 • **작품 전시**: 아이들이 그린 에너지 절약 마크, '밤하늘 가득 별 그리기' 작품 등을 전시 • **그림책 읽어주기**: 전시 기간 중 학부모나 유치원 교사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구를 위한 한 시간' 그림책을 읽어주는 행사 진행하기 • **체험 활동 운영**: 전시 공간에 '미니 어스아워 체험존'을 만들어 불을 끄고 작은 손전등으로 보물찾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지역 소상공인 연계	•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나 개별 상점들에 유치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제안하기 (예: 특정 시간 간판 소등 참여, 에어컨 적정온도 유지 등) • 인증 스티커: 참여 상점에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한 '에너지 지킴이' 인증 스티커 수여 • 아이들 방문: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 상점에 방문하여 "지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

가족과 함께 동물들의 진정한 행복 찾기 프로젝트



그림책 소개 2



"모든 동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내일의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

도 서 명 : 내일의 동물원

- **글 · 그림:** 에릭 바튀
- **출 판 사:** 봄볕

동물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아플 때 잘 치료해 주는 수의사가 있는 동물원! 동물원은 과연 동물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서식지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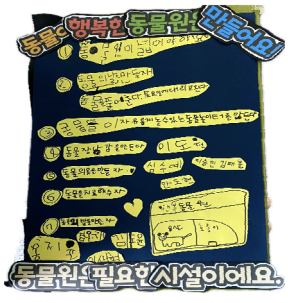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생각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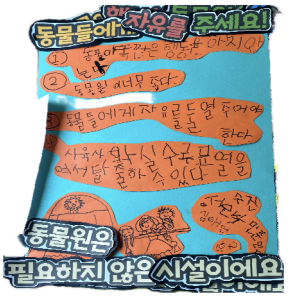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멘도자 동물원의 오랑우탄 '산드라'와 침팬지 '세실리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의욕 없이 누워있는 등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동물도 인간은 아니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되어 '자유'라는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자연으로 돌려보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와 동등한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동물의 기본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교실 속 생태전환교육 이야기

『내일의 동물원』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은 것은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뜨거워지는 지구, 점점 좁아지는 생명체들의 터전을 보며 자연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 생명체를 왜 존중해야 하는지를 마음 깊이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는 뉴스 속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임을 깨닫게 합니다. "동물원에 다녀왔어요! 원숭이가 천장에 매달려있었어요.", "북극곰이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 "멸종 위기 동물들을 동물원에서 보호해 준대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실제 경험을 그림책과 연결 지어 아이들 스스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삶과 관련된 생태전환적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책장을 넘기며 아이들이 '동물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담겨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교실 속 생태전환교육] 이렇게 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유치원에 있던 동물키우기 영역이 사라진 것을 보고 궁금해하던 아이들!
아이들의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의 동물원' 그림책을 읽어보았어요.

그림책을 읽고 동물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동물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동물원은 동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일까?

우리는 함께 동물들에게 동물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해보기로 했어요.
토론을 하다가 모두의 의견 중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 모두 동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토의를 해보았어요.


동물들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는 우리가 달라져서
동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해요!


하지만 동물원에 오래 살던 동물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기 어려울 수도 있대...


너희들 의견은 모두 의미 있는 중요한 것들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최선일까?


캠페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의 고민들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준비해 보자!


구호도 정하고, 노래도 만들어요!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한 팀을 정해볼까?

만들기 팀, 홍보팀, 노래팀으로 나뉘어서 캠페인을 준비했어요.
다른 반, 교무실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도 외치며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유치원 곳곳에 포스터도 붙여 우리의 고민과 걱정들을 알렸어요.


유치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캠페인을 해서
우리의 생각을 알리고 싶어요!
"우리 집에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배움

아이들이 우리가 캠페인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아이들의 가정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캠페인의 주체는 아이들이기에 우리의 캠페인을 우리 집에는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집에도 포스터를 붙여요.", "우리가 캠페인 하는 모습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만든 캠페인 송을 엄마 아빠께도 불러드려요", "집에서도 동물들이랑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등 다양한 생각을 토대로 가정연계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리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의 동물 사랑에 대한 긴급한 목소리를 생생히 느낀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고민과 실천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가정연계] 이렇게 해 볼 수 있어요





동물보호 캠페인, 영상으로 공유하기

유치원에서 실시했던 동물보호 캠페인, 전 세계의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가정에 공유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한 캠페인 및 멸종 위기 동물 영상을 보고 가정에서도 동물과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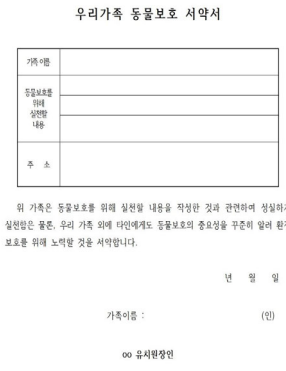


지구인 챌린지

지구인으로서 생태를 되살리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 1주 1실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의견을 내었던 '생태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부모님께 공유하고, 아이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연계자료 바로 사용하기


우리가족 동물보호 서약서

가족 이름	
동물보호를 위해 실천할 내용	
주 소	

위 가족은 동물보호를 위해 실천할 내용을 직접한 것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실천함은 물론, 우리 가족 외에 타인에게도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려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가족이름 : (인)

OO 유치원장인

지구인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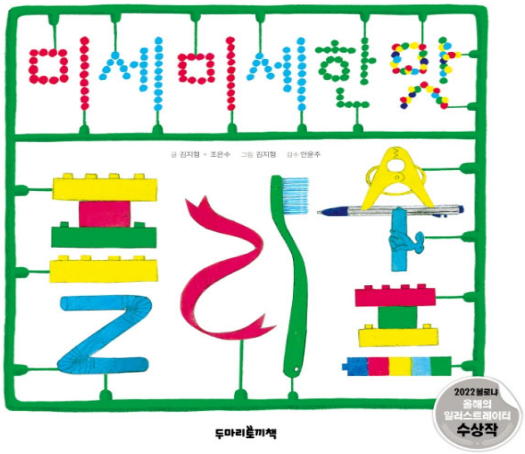
지구인으로서 생태를 되살리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 1주 1실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의견을 내었던 '생태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부모님께 공유하고, 아이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구를 웃게 하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그림책 소개 3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숨겨진 위험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

도 서 명 :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 **글 :** 김지형, 조은수
- **그림:** 김지형
- **출판사:** 두마리토끼책

자연에서 온 재료는 비바람에 닳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은 어디로 갈까요?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생각의 전환!

지구 바다에는 '플라스틱 섬'이라 불리는 거대한 쓰레기 지대가 있습니다. 이 중 약 46%는 어업용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병·비닐·빨대·미세플라스틱 등 우리의 일상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바다 오염을 넘어, 자연을 도구로 여겨온 인간의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플라스틱은 바다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결국 우리의 몸으로 돌아와 삶의 지속 가능성을 해칩니다. **자연은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편리하게 쓰고 버리는 습관에서 벗어나 절제와 순환, 공존을 실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덜 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교실 속 생태전환교육 이야기

아이들과 함께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대해 알아보던 중,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목숨을 잃는 바다 생물이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결국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고, 공기와 물속까지 스며드는 현실을 보며, **자연과 인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그림책은 미세플라스틱을 점으로 표현해, 사람의 몸이 결국 미세플라스틱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아이들이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위기를 이해하기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플라스틱의 장단점을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교실 속 생태전환교육] 이렇게 해 볼 수 있어요



그림책을 읽고 나니, 우리 교실에는
어떤 플라스틱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선생님, 이것도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데, 우리반 친구들은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대요.

우리는 플라스틱 탐험대가 되어
그림책이 알려주는 플라스틱을 직접 찾아보고, 만지고,



우리 교실에 있는 장난감들이 모두 플라스틱이야!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으로 동물도 아프고
우리도 아프게 되잖아요!

동물과 사람 모두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교실에 있는 많은 플라스틱을 보면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어요.

소리도 들어보고, 딱딱함도 느껴 보았어요. 아하! 이런 게 바로 플라스틱이구나! 우리 교실 속 플라스틱을 탐험해보니,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 교실에 새로운 장난감을 더 넣지 말아요! 장난감이 고장나면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장 난 장난감을 우리가 고쳐줘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장난감도 병원을 만들어요. 친구들이 순서대로 장난감을 고치는 의사선생님이 되어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서 놀이해요.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배움

"우리 집에는 어떤 플라스틱이 있을까?", "우리 집에 있는 플라스틱도 우리 교실만큼 많을까?"
"우리 엄마도 수영복이 플라스틱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사람들이 편하려고 만든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동물이 사는 곳도 망가지고,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엄마, 아빠는 알고 있을까?"

'플라스틱 탐험대'가 되어 우리 교실에 있는 플라스틱을 찾아본 후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그림책을 이용한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 사용한 플라스틱이 동식물과 사람을 모두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플라스틱 탐험대' 대원으로 플라스틱을 찾아보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플라스틱 탐험대'의 대장으로 가족들과 함께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했답니다.

[가정연계] 이렇게 해 볼 수 있어요





플라스틱 탐험대 카드뉴스

"아이와 함께 설거지 바(비누)로 그릇을 닦으니 재미있어하고, 지구와 나를 지킨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작은 실천에도 아이는 '이건 플라스틱이 없어서 물고기에게도 좋겠다'라며 기뻐했어요."
"배달 시 일회용품 제외 옵션을 누르며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평소에 입던 티셔츠가 플라스틱이라니! 앞으로는 꼭 필요할 때만 구입하기로 다짐합니다."

카드뉴스 바로 사용하기





지구랑 함께해요

"아이와 함께 수퍼빈 기계(페트병 수거 기계)를 지나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아이와 놀이처럼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깨끗한 페트병이 모여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지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실천으로 사람과 자연이 모두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가정연계자료 바로 사용하기

생태전환교육, '진정한 아나바다'로 삶과 가정에 스며들다!



'아나바다'에 대한 생각의 전환!

생태전환교육을 기반으로 펼쳐진 '진정한 아나바다'는 아나바다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행동의 시작점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나바다는 단순한 물건 나눔이 아닙니다. **행복이 소유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깨닫고, 내 삶을 돌아보며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그 물건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진정한 아나바다'**입니다.

진정한 아나바다와 함께하는 유치원 속 생태전환교육 이야기

생태전환교육을 실천 중인 교사의 삶에 일어난 변화

시작은 무더운 여름날, 유치원으로 생태전환교육 교사연수를 하러 오시는 강사님께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강사님! 저희 음료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강사님은 어떤 것으로 드시겠어요?"라는 제 물음에 강사님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회용품이 사용된다면 저는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대답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연수 시간, 제 앞에 놓인 음료가 담긴 일회용 컵을 바라보며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무심히 사용해 왔던 걸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며 발견한 쓰레기를 계기로 '쓰담 달리기' 활동을 계획하고, 학부모회와 연계하여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정작 저는 생태전환교육을 '교육과정'으로 실행해야만 하는 교사이기에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었을 뿐 제 삶의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물건을 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걸까?',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나둘 물건을 정리하다가, 놀랍게도 부엌 가위가 네 개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새로 사고 또 사서 쌓인 것이겠지요. 저는 가장 필요한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세 개는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누가 필요로 할까?', '비싼 것도 아니고 새로 사면 그만일 텐데….' 하지만 용기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부엌 가위 필요하세요?", "친구야, 가위 필요 없니?" 몇 번의 물음 끝에 세 개의 가위는 모두 나눔이 되었고, 마지막 가위가 제 손에서 떠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눔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이 기쁨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유치원에서 '진짜 필요한 것 찾기'와 '나눔'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사에서 교실로 이어진 아나바다

아이들과 함께 저의 가위 나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가위 나눔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우리 교실에도 필요 없는 물건은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친구나 동생들에게 나눔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선생님, 우리 교실도 한번 둘러보아요. 놀잇감이 많아 정리가 힘들잖아요."

우리 교실에도 놀잇감이 너무 많아
- 우리는 필요 없지만 다른 반은 필요할 수도 있어! -

 이거요!! 우리 반에 게임이 이렇게나 많은데 잘 가지고 놀지 않으니까 이거 나눔해요.

 안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야.

 너는 가지고 놀지 않지만 나는 필요하다구.

누군가는 필요 없고, 누군가는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나눔 할 놀잇감을 정하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교실의 물건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니

모두가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는 물건만 나눔을 하도록 하자

 좋아요!

 그럼, 우선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반에 필요 없는 물건을 찾아서 모이자

아이들은 곰곰이 생각하며 잘 가지고 놀지 않는 놀잇감, 너무 많은 물건 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모여 각자 찾아온 물건을 살펴보며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가 가져온 자동차가 정말 필요하지 않니?

아니요!! 자동차 놀이가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가져온 약 20개 종류의 놀잇감과 물건 중에서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세모 벽돌블럭 3개였습니다.
세모 벽돌블럭을 필요로 하는 반을 알아보니 3반에서 요청해서 나누어주기로 하였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많을 줄 알았는데, 세모 벽돌블럭 3개만 나눔을 하게 되었네.

쟤네들은 잘 가지고 놀지도 않으면서 나눔하면 안된대요.

이제 우리 반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게 좀 아까웠어.

나눔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도 벽돌블럭을 3반에 나누어 주었더니 기분이 좋아요.

3반 친구들이 고맙다고 해주니까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눔을 받은 3반에서
새로운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날짜와 요일 그리고
시간을 알아보는 놀잇감인데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필요 없대요

근데 우리는 날짜와 요일, 시간을 잘 알고
있어서, 동생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3반 친구들은 동생반에 가서 나눔할 놀잇감을 소개해주었고
어떻게 놀이하면 재미있는지 놀이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선물처럼 놀잇감을 전해 받은 동생들과 즐겁게 놀이하며 웃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아나바다

이번엔 우리 집에도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는지 찾아봐요

나도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이 많은데, 짝꿍 동생에게 주고 싶어!

이렇게 새 물건을 사지 않고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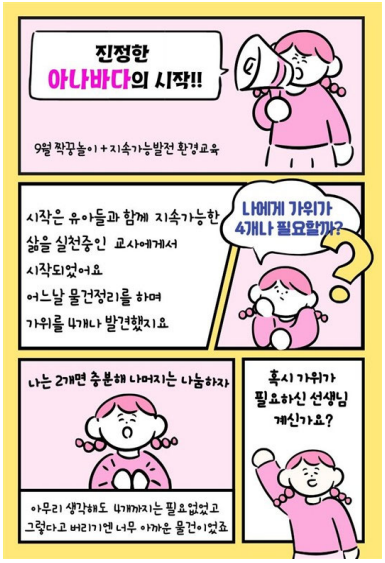
다 함께해요! 시장 놀이처럼요!

이렇게 교실에서의 작은 나눔이 즐거움으로 자리 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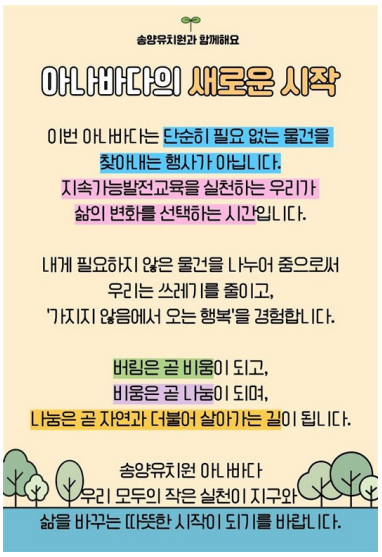
이번에는 유치원 전체가 함께하는 아나바다로 이어졌습니다.

가정에도 진정한 아나바다를 알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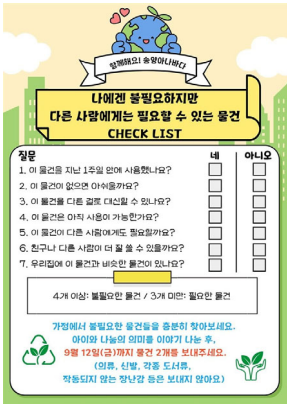
- 물건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물건을 살펴보며 정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인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고민했고, 그렇게 준비한 물건들을 유치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장난감을, 어떤 친구는 머리띠를, 또 어떤 친구는 엄마가 사용하지 않는 주전자를 가져왔습니다. 등원하는 아이들의 작은 손에 들린 물건 하나하나에는 '기쁨'과 '나눔'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나바다 하려고 엄마랑 같이 찾아보았는데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새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도 우리 집에 이런 물건들이 있었는지 몰랐대요."

모아진 물건들을 보며 어떤 가게들이 열릴지를 결정하고 가게 이름도 직접 쓰고 그리며 간판도 만들고 어떻게 사고팔지를 결정하며 아나바다 놀이가 준비되어 갔습니다.

진정한 아나바다 그 시작의 날

- 다시 시작하는 아나바다, 아이들과 함께한 작은 변화 -

드디어 아나바다 장터가 열린 날, 아이들은 서로의 물건을 소개하고, 놀이방법이나 쓰임새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놀면 더 재미있어!", "이 가방은 우리 엄마 건데 커서 다 넣을 수 있어."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물건이 단순히 물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야기가 되고, 관계가 되고, 웃음이 되어 흘러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아나바다에서는 '용기내 챌린지'도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용기와 그릇을 뜻하는 용기가 같은 단어임을 알고 맛있는 뻥튀기를 비닐봉지나 종이컵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란 교사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던 아이들은 "있어요! 방과후 간식판 있잖아요. 여기다 먹어요!"를 외치며 스스로 간식판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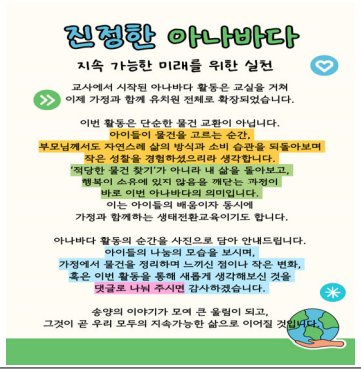


"크레파스 사세요", "야구방망이 사세요" 아이들은 각자의 물건을 홍보하며 물건을 팔았고, 사는 아이들은 정말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물건인지를 고민하여 물건을 골랐습니다. 모든 물건이 팔리자 다 팔았다는 성취감보다는 "우리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필요했나봐"라며 필요성에 중점을 두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또 하자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물건을 아껴서 사용할 것 같아요"

"나눠쓰고 바꿔쓰는 거는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도 꼭 다시 해요."

다시 가정으로 이어지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이번 아나바다를 계기로 학부모님의 삶에 찾아본 변화를 들려주세요 -



아나바다 활동을 마친 후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내드리며 학부모님께서 이번 활동을 함께 하며 느끼신 점들을 댓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나눔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성찰이 담겨 있었고, 글을 읽는 내내 "우리가 함께하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전해져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율 엄마 9월 29일 오후 6:48
도율이가 아나바다에서 2가지의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며 미리부터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진을 보니 도율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교환해온 것들은 도율이를 위한 것이 아닌 친한 동생과 저에게 줄 것들을 골라왔더라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도율이를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은 엄마 9월 30일 오전 7:56
다은이는 아나바다 행사에 낼 물품을 함께 고민하며 "이거 나 애기 때 진짜 좋아했잖아. 엄마가 찍어준 사진도 있잖아."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물건을 단순히 필요 없어졌다는 이유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리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또한 자유롭게 물품을 고르되, 두 장의 쿠폰이라는 제한된 범위 속에서 선택하며 절제를 경험하고, 스스로 조절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판매를 위해 맡은 역할 자리를 지키며 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경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계획해주시고 교육환경을 지원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송양유치원 최고!👍

김♥은 엄마 9월 29일 오후 4:54
이번 활동을 통해서 물욕을 조금 덜어내는 경험을 배운 것 같아요 :)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인형이 많아서 인형을 나눔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연필과 스티커를 받아왔어요!

꼭 새것을 사는 것보다
나눔으로 나의 물건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나눔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 믿어요 :)

교사의 삶에서 시작된 진정한 아나바다의 실천으로 아직은 나눔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일지라도, 아이들은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소유가 아닌 공유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경험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스며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자리했습니다.

이제 아나바다는 단순한 물건 교환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작한 나눔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비움으로 채워지는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 에세이로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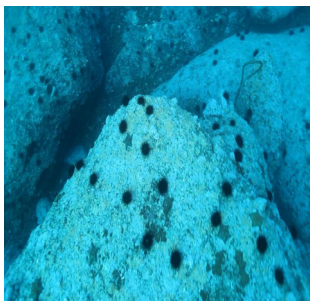
에세이1. 이제, 그만 사겠습니다.

학부모 허지영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던 30여 년 전 일입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 엄마는 연례행사처럼 시장에서 긴 팔, 긴 바지의 새 옷을 사오셨습니다. 주황색과 남색이 섞인 그 가을 스웨터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때는 추석이 꽤나 춥고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은 어찌나 날이 더운지 가족들이 모두 반팔을 입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 진짜 지구가 더워지고 있긴 하구나. 추석에 여름 옷이라니. 새삼 지구온난화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는 너무 빨리 뜨거워지고 있고, 그보다 더 빨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7살 아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인 줄 착각해, 소화기관이 막혀 죽은 고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고래의 뱃속에서 무려 29키로가 넘는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우리 아이는 왜 바다에 플라스틱이 버려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진에서 내 시선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에 버려진 옷들이 거대한 선박처럼 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흡사 쓰레기 소각장 같았는데, 바다가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버린 옷도 저 안에 있지 않을까.
옷이 어떤 경로로 바다에 저렇게 흉물스럽게 섬처럼 쌓여있는 걸까. 나는 헌옷수거함에 버린 옷이 어떻게 바다에 쌓여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헌옷수거함의 5프로 정도만 빈티지로 활용되고, 나머지 95프로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지만, 그 중 절반은 바다와 강, 들에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 버려진 옷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와 물고기와 새들이 그걸 먹으며, 옷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떠다닌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용카드만큼의 미세플라스틱을 코로 들이쉬고 먹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내린 눈에도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기사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제 지구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미역을 받아와서는 바다사막화가 되고 있다며 해조류를 바다에 많이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고체비누를 받아와서는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샴푸를 대신해 이걸로 머리를 감겨달라고 했습니다. 양치 컵을 사용해 물을 아끼고, 종이를 재사용해 나무를 살리는 일. 어쩌면 이런 작은 지속적인 일상의 실천이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유의미한 첫걸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생태전환적 사고와 생태에 대한 감수성, 이에 대한 실천의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옷장 속의 옷을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외치며 입을 수 있지만, 유행이 지났다며 죄다 버린 옷들. 하지만 어느 새 빈 공간을 다시 새 옷으로 채우는, 이율배반적인 나의 행동에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물건으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미니멀 라이프가 하나의 유행이 되었지만,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버릴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소비하지 않고 내가 버린 것의 마지막 처리과정까지 생각하며, 어떻게 잘 버릴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 옷과 신발을 덜 사고, 가급적 오래입고 물려주고, 나누고 교환해 입는 일상적 문화가, 그 어떤 외침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욕심을 버리고 불편하면, 모든 생명체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부터 먼저 실천하고자 합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교사 이야기

아이들과 생태전환교육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 매월 달력 속에 있는 환경의 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를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태전환적 관점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활동 중 하나를 예로 들면, 바다 사막화가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바다 생물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도 함께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사막화는 바다 생물들이 집을 잃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집을 잃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바다 생물에게도 바다는 소중한 삶의 터전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정연계를 통해 유치원에서의 작은 실천이 가정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세이2. 습관이 되니 불편함이 뿌듯함으로 느껴지는 생태전환교육 학부모 한정숙



이전부터 제로웨이스트, 제로플라스틱 등에 관심은 많았으나 일회용품 사용의 편리성에 익숙해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텀블러 사용부터가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에 가든 지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이었지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 덕분에 자연스럽게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었고, 막상 실천해 보니 전혀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울 뿐, 습관이 되고 나니 이제는 텀블러를 지참하는 것이 삶의 기본 태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텀블러를 사용하니 언제 어디서든 음료를 마실 수 있어 오히려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주는 뿌듯함은 제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유치원을 통해 지구 소등의날, 물 절약의 날 같은 날들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기후 위기로 인한 세계 곳곳의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양치컵을 사용하고, 쓰지 않는 물은 잠그며, 불필요한 불은 반드시 소등하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지구와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크게 다가온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꼭 아이와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생활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교사 이야기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셔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준비하시는 학부모회 모임, 학부모 연수, 학부모 참여수업 등이 있을때, 작은 배려로 준비한 종이컵과 음료는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유치원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이컵이 없다고 드리지 않는 것이 한국정서에 야박하기 그지없기도 하고 더욱이 귀한 시간 내어 오시는 분들에게 텀블러까지 지참해서 오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원의 자율과제인 생태전환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취지를 말씀드리니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먼저 실천해주셨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던 불편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늘 어디서든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우리 학부모회 부모님들의 생태전환교육실천은 우리 유치원의 자랑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함께 고민합니다. 방학 때 사먹는 도시락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고민하다보니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봅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그릇을 수거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플라스틱을 많이 버리는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때론 어려움을 함께 하자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에세이3. 작은 손수건, 큰 변화

학부모 유은경

며칠 전 아이가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손을 씻은 뒤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을 사용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체험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엄마, 종이 많이 쓰면 지구가 아파." 아이가 건네는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습관처럼 종이타월을 뽑아 쓰던 내 모습을 돌아보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가방 속에는 저마다의 손수건이 자리 잡았습니다. 외출할 때도, 집에서도, 손을 씻은 뒤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씁니다. 손수건을 펼칠 때마다, 작은 실천이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따라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작은 손수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아끼는 일이 과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어쩌면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숲을 지키고, 아이가 살아갈 미래의 공기를 맑게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 장의 손수건이 우리 가족에게, 모두에게 주는 울림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교사 이야기

우리 유치원은 생태전환적 교육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약 2주간 손수건 사용하기 활동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주간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후 잘 털고 자신의 가방에 매달려있는 손수건을 사용하였습니다. 2주 후 선생님들과 지속할지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처음엔 선생님들이 교사인 우리가 불편하고 아이들 지도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2주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종이타월을 사용하고 학부모님들께도 2주간만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손수건을 가방에 달고 와서 손수건에 손을 닦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했더니 아이가 집에서도 열심히 손수건에 손을 닦고 외출할 때도 손수건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어 실천되고 또 이러한 습관이 다른 누군가에게 스며드는 것이 생태전환적 교육인가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생태전환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불편하지만 함께하자!' 라는 의미에서 2학기부터 '손수건 쓰기'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학부모님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생태전환교육이 이어지고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에세이4. 아이와 함께 시작하는 작은 변화, 생태전환교육

학부모 이혜림

생태전환교육..? 솔직히 말하면, 요즘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 중 하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플라스틱 탐험대' 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 재미있는 놀이쯤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집에서 진지한 얼굴로

"엄마, 플라스틱이 바다에 가면 물고기도 아프고, 동물도 아프대"

그 한마디가 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이가 받아온 고체 샴푸는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고, 처음에는 이것이 샴푸인가. 비누인가? 어색했지만, 아이가 알려주는 대로 함께 머리를 감아 보았습니다. 작은 실천에도 아이는 기뻐하며 "이건 플라스틱이 없어서 물고기가 덜 아프겠다."라며 기특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도 욕실선반이며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동안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일상 속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이건 플라스틱이야? 종이야? 유리야?"

무언가를 볼 때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했고, 그 질문과 함께 물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나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자연에서 인간이 함께 행복하려면 앞으로 나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거창한 변화는 어렵더라도, 아이와 함께 플라스틱을 덜 쓰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집에 도자기 그릇이 많이 있기에 플라스틱 용기 대신 도자기 그릇에 음식을 담거나, 비누받침처럼 자주 쓰는 물건도 플라스틱 대신 도자기로 바꾸는 등 큰 변화는 아니지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방에서 아이와 함께 도자기 비누받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주말에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그림자료 발췌]

버리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 우리아이가 살아갈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작은 배움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나도 함께 배우는 과정.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이 작은 생태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었지만, 변화를 돌아보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교사 이야기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생태전환교육을 하면서, 가정과 함께해야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들과 함께 한 활동 내용을 카드뉴스나 소식지로 만들어 가정에 소개하고, 부모님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목숨을 잃는 바다 생물이 나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된 플라스틱이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저 동식물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인간의 편리함, 무지함으로 인해 동식물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같은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반에서 이루어진 생태전환교육 활동이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플라스틱 찾기 놀이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고민하던 중, 학부모님의 에세이를 받고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평소 말없이 조용한 듯 하였는데, 집에서 부모님에게 자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함께 실천하며 부모님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작은 상황들도 생태전환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태전환적 사고가 아이들과 가정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인 저부터 우리의 생각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세이5. 생태전환교육,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학부모 함유진



유치원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 덕분에 아이들은 어느새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생태전환적 사고가 삶에 스며드는게 느껴지고 그 영향은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소등의 날에는 스스로 불을 끄며 "전기를 절약해야 해요"라고 말했고, 물 절약의 날에는 양치 후 남은 물을 식물에 주며 물의 소중함을 직접 느꼈습니다. 또한, 병뚜껑 재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몇 달 동안 모은 병뚜껑으로 키링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폐기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간식 먹고 남은 재활용품을 스스로 가져와 집에서 작품을 만들며, 작은 물건도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스스로 하고, 외출할 때는 개인 물통을 챙기는 등 생태전환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생태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 육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책임감과

배려심, 협동심, 창의력을 함께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작은 실천과 그로 인한 정서적 성장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며, 부모로서도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교사 이야기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무언가를 배우고 와서 그것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부모는 멈칫 하며 지나치기도 하고, 자세히 들어주며 함께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치듯 말하는 그 순간이 아이의 생태전환교육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민감기입니다.

우리 아이의 자연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생각은 바로 그 순간, 부모의 경청과 함께 실천함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세이6. 우리 아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생태전환교육

학부모 김보영

요즘 우리 아이 덕분에 제 삶이 조금씩 자연에 물드는 기분입니다. 유치원에서 시작된 '생태전환교육' 덕분입니다.

사실 처음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냥 환경교육을 하며 놀고 자연을 체험하는 정도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보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단순히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름방학쯤 되었을 때입니다.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작은 실거미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예전 같으면 "엄마, 거미 있어요!" 하고 나뭇가지나 돌멩이로 건드리며 놀이했을 텐데, 이번엔 "엄마! 거미가 열심히 가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거 같아요. 다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게 지켜봐 줘야 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곤충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주 작은 거미를 관찰하고, 그들도 자기처럼 엄마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켜줘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저도 모르게 아이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거미를 관찰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가 곤충을 무서워하거나 해충이라고 여길까 봐 먼저 치워주곤 했는데, 이제는 저도 "저 벌레도 어딘가로 가야 할 길을 가는 중일 거야." 하며 자연스럽게 피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섭다고 생각했던 작은 곤충들을 우리 아이의 시선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어른이 먼저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연과 곤충, 동물과 함께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교사 이야기

우리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가정이라는 든든한 밭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교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생태전환교육'은 단순히 자연을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자연을 이루는 모든 생명체가 저마다의 존재 이유와 소중함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인간 또한 그 일부로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깊이 있는 이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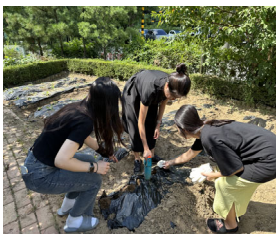
유치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화단 구석의 흙 속 친구들을 찾아보고, 떨어진 나뭇잎 하나도 자세히 관찰하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어떤 친구는 작은 개미의 움직임에서 치열한 삶의 흔적을 읽어내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가정과 이러한 배움을 연결하기 위해 저는 학부모님들께 '방학 중 길가에서 피어난 예쁜 들꽃을 보며 잠시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역시 아이들에게 중요한 생태전환교육이 될 것이므로 유치원과 가정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에세이7. 자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태전환교육의 동반자로 서다! 학부모 남현주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만큼 내 삶 속에서 '책임'의 무게가 더해진다는 것.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등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에 감정이나 행동 자체를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유치원을 다녀온 둘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휴지를 많이 쓰면 북극곰 집이 없어진대." 아이의 그 작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기까지는 물론 가정에서부터 내가 주축이 되어 습관처럼 양치컵 사용하기, 세수할 때 물 받아쓰기, 쓰레기 분리배출 올바르게 하기, 이면지 사용, 미사용 플러그 빼두기 등 매일의 생활 속 여러 상황에서 몸소 실천하며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만 유치원에서도 평소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과 중에서 생태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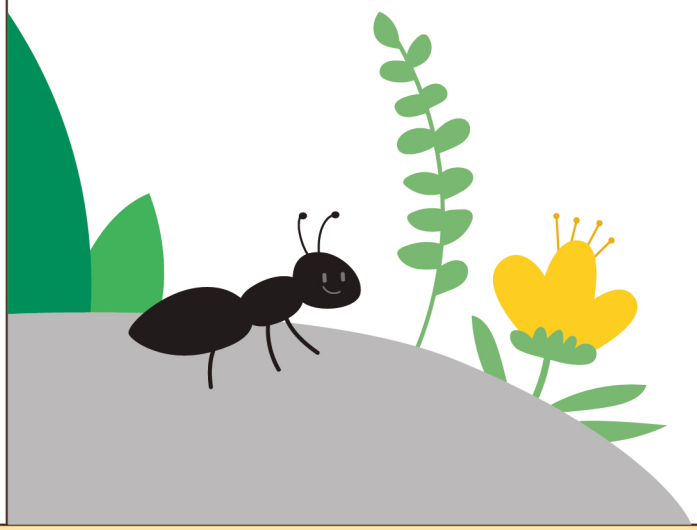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하에 배우고 있으니 아이에게 스펀지에 물 스미듯 생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안 들 수 있겠으랴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의 형식적 실천이 아닌 진심에 의한 생태 사랑은 훗날 먼 미래를 보았을 때 모든 생명체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저 작은 몸짓에 불과하지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한다면 아주 크고 좋은 파장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엄마로서의 나는 강압이 아닌 자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멋진 동반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내일도...



가정과 함께하는 교사 이야기

아이들의 조잘조잘 거리는 이야기들을 그냥 흘리지 않고 함께 들어주며 실천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지속되고 이어지도록 가정에서도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의 뒷모습, 교사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겠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보여지는 것들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삶, 또한 진실해야 함을 보여주는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IV



생태전환적 삶으로 스며드는 문화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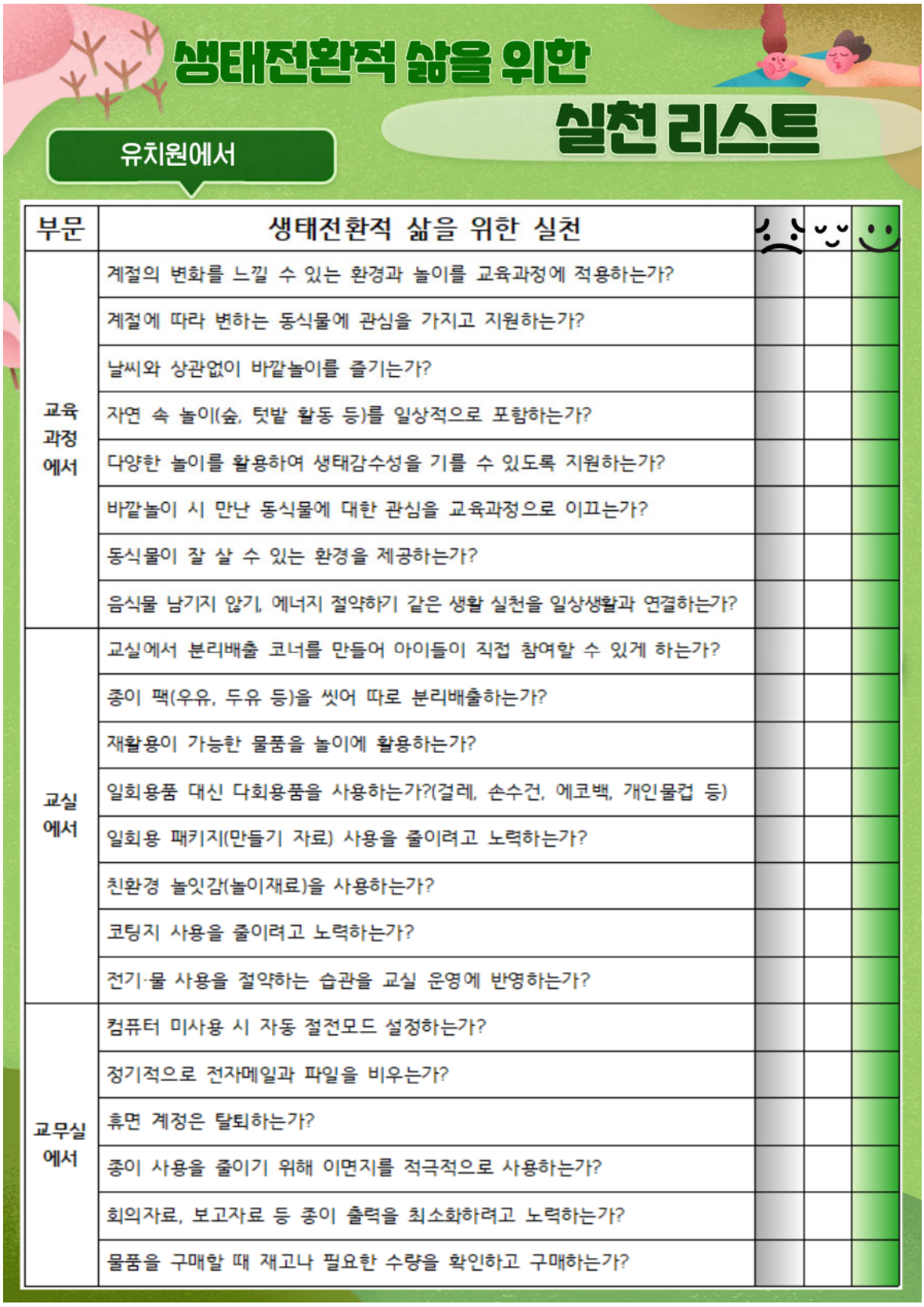
1.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실천 리스트
   1) 유치원에서
   2) 가정에서

2. 생태전환적 삶의 실천
   1) 함께 만드는 작은 수건의 큰 변화
   2) 빨대 사용 이제는 NO! NO!
   3) 장난감이 고장났어요
   4) 1회용 대신 계속 쓰는 에코백
   5) 텀블러 사용하기_작은 실천 큰 변화
   6) 참 쉬운 코팅지 쓰지 않기
   7) 자연 속에서 자라는 생태감수성
   8) 우리 주변 동물과 함께 하는 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적 유치원 문화를 함께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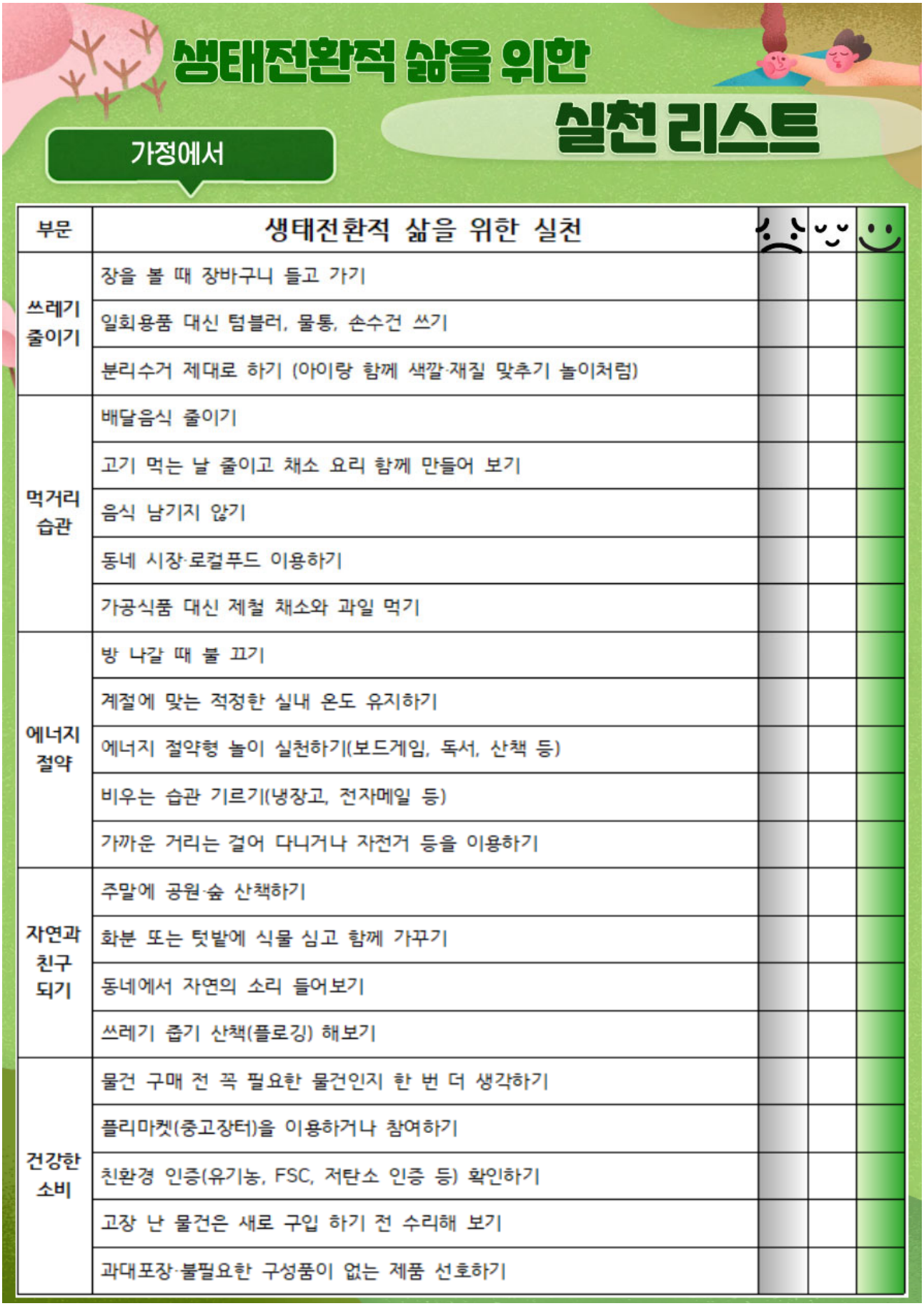
1.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실천 리스트

1) 유치원에서



부문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실천	😞	😐	😊
교육과정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환경과 놀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하는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가?			
	날씨와 상관없이 바깥놀이를 즐기는가?			
	자연 속 놀이(숲, 텃밭 활동 등)를 일상적으로 포함하는가?			
	다양한 놀이를 활용하여 생태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바깥놀이 시 만난 동식물에 대한 관심을 교육과정으로 이끄는가?			
	동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가?			
	음식물 남기지 않기, 에너지 절약하기 같은 생활 실천을 일상생활과 연결하는가?			
교실에서	교실에서 분리배출 코너를 만들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			
	종이 팩(우유, 두유 등)을 씻어 따로 분리배출하는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놀이에 활용하는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가?(걸레, 손수건, 에코백, 개인물컵 등)			
	일회용 패키지(만들기 자료)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가?			
	친환경 놀잇감(놀이재료)을 사용하는가?			
	코팅지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가?			
	전기·물 사용을 절약하는 습관을 교실 운영에 반영하는가?			
교무실에서	컴퓨터 미사용 시 자동 절전모드 설정하는가?			
	정기적으로 전자메일과 파일을 비우는가?			
	휴면 계정은 탈퇴하는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면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가?			
	회의자료, 보고자료 등 종이 출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가?			
	물품을 구매할 때 재고나 필요한 수량을 확인하고 구매하는가?			

2) 가정에서



부문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실천	☹	😐	☺
쓰레기 줄이기	장을 볼 때 장바구니 들고 가기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물통, 손수건 쓰기			
	분리수거 제대로 하기 (아이랑 함께 색깔·재질 맞추기 놀이처럼)			
먹거리 습관	배달음식 줄이기			
	고기 먹는 날 줄이고 채소 요리 함께 만들어 보기			
	음식 남기지 않기			
	동네 시장·로컬푸드 이용하기			
	가공식품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 먹기			
에너지 절약	방 나갈 때 불 끄기			
	계절에 맞는 적정한 실내 온도 유지하기			
	에너지 절약형 놀이 실천하기(보드게임, 독서, 산책 등)			
	비우는 습관 기르기(냉장고, 전자메일 등)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기			
자연과 친구 되기	주말에 공원·숲 산책하기			
	화분 또는 텃밭에 식물 심고 함께 가꾸기			
	동네에서 자연의 소리 들어보기			
	쓰레기 줍기 산책(플로깅) 해보기			
건강한 소비	물건 구매 전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생각하기			
	플리마켓(중고장터)을 이용하거나 참여하기			
	친환경 인증(유기농, FSC, 저탄소 인증 등) 확인하기			
	고장 난 물건은 새로 구입 하기 전 수리해 보기			
	과대포장·불필요한 구성품이 없는 제품 선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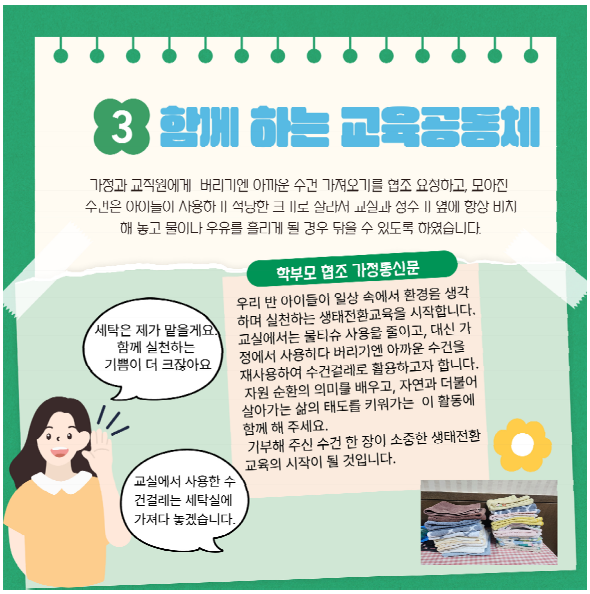
2.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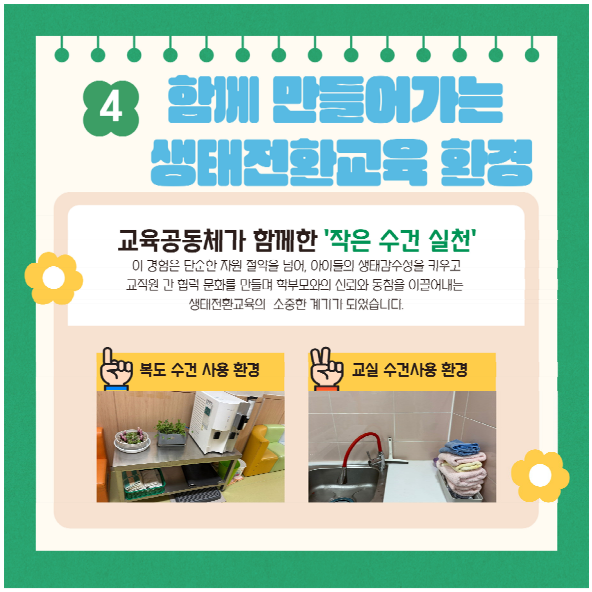
1) 함께 만드는 작은 수건의 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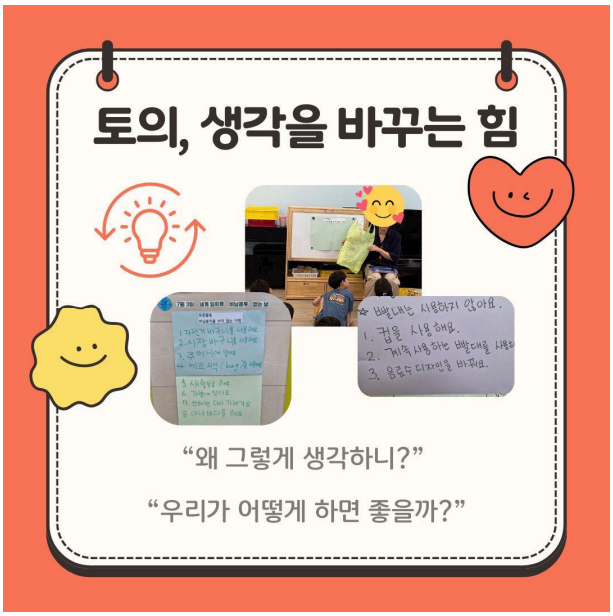






2) 빨대 사용 이제는 NO!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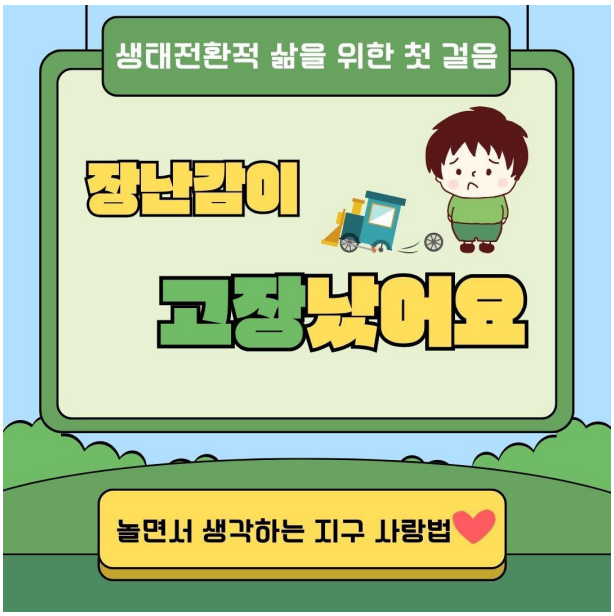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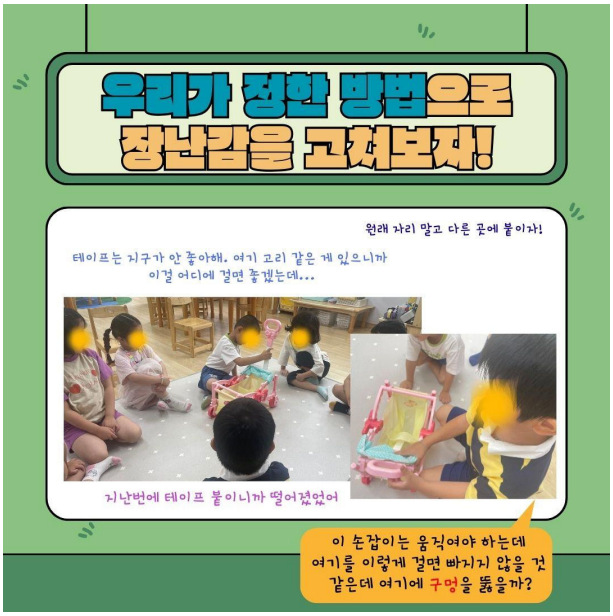


3) 장난감이 고장났어요!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첫 걸음
장난감이
고장났어요
놀면서 생각하는 지구 사랑법


교실의 장난감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재미있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부숴졌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들아!
같이 이야기 해보자!
1. 생각나는 대로
의견 모으기
망치로
고쳐요
버려요
2. 망가진 장난감
자세히 살펴보기
망치로 고칠 수 있나?
자세히 봐야겠어
친구야!
네 생각은 어때?
3. 의견 구체화하기
망치로 하면
장난감이
다 부서질 것 같아
4. 나와 친구, 장난감, 지구
모두가 행복한 방법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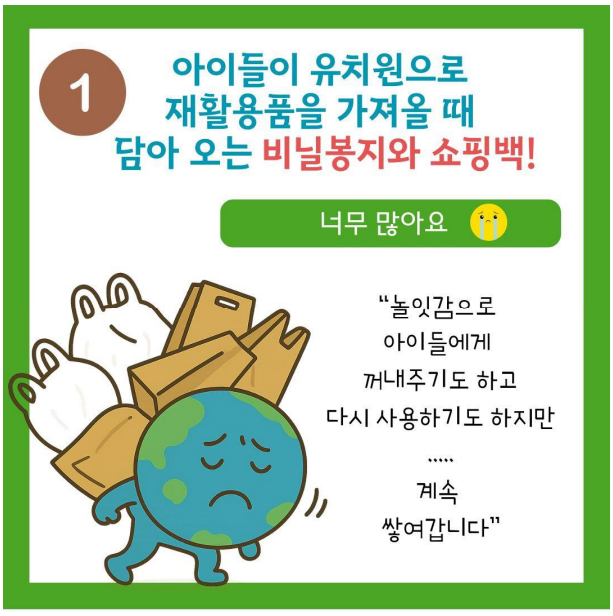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장난감을 고쳐보자!
원래 자리 말고 다른 곳에 붙이자!
테이프는 지구가 안 좋아해. 여기 고리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어디에 걸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테이프 붙이니까 떨어졌었어
이 손잡이는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걸면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구멍을 뚫을까?


소중하게 사용해요!
우와!
다시 쓸 수 있어!
망가진 장난감을 고치는 경험을 통해 더욱 자라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적 역량
생태전환교육의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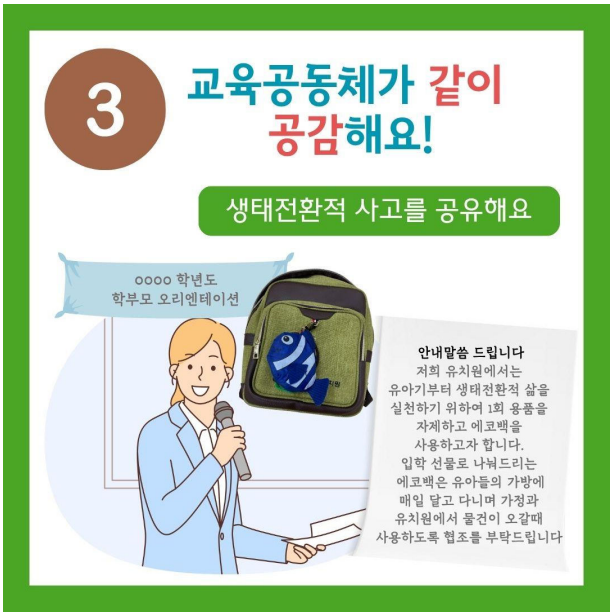

장난감이 고장났어요

4) 1회용 대신 계속 쓰는 에코백













5) 텀블러 사용하기, 작은 실천 큰 변화!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첫 걸음

텀블러 사용하기, 작은 실천 큰 변화!

이제부터 유치원 행사와 모임에는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요
생태전환교육의 시작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생태전환교육 카드뉴스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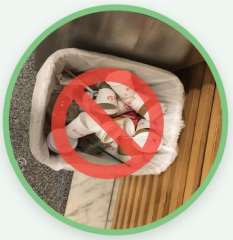
문제 인식

학부모 연수, 행사 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환경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학부모 연수 시 평균
50개 이상의 종이컵이
사용됩니다.

*일년 동안 유치원 행사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은 **수백 개**에 달합니다.

*종이컵 한 개 제작에
많은 **나무와 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종이컵 1개가 분해되는 데
약20년이 걸립니다.**

생각해보세요! 2/5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의 첫 걸음이 됩니다.

공감대 형성

'우리 손에 들린 종이컵 한 개,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할까요?'
함께 고민해봐요.

*교사회의에서 **생태전환 의제**로 논의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적극적 참여**

*아이들과 함께 **생태전환 이야기**
나누기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

함께 토의하고 공감하는과정 3/5

텀블러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실천 방안

안내문을 보내고
선물로 텀블러를 제공합니다.

*연수 안내문에 **텀블러 지참을
권장**하는 문구를 넣어요.

*신입생 입학 선물로
친환경 텀블러를 제공해요.

*학부모 연수 참여자에게
감사선물로 텀블러를 준비해요



**텀블러 1개 사용으로
1년에 500개 이상의 종이컵 절약!**

작은 선물, 큰 변화! 4/5

텀블러 선물과 사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지구와 생명을 지키는 또 다른 첫걸음입니다.

함께하는 참여 실천

이제 유치원의 모든 행사에는
내 텀블러를 챙겨오는 것이 기본!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실천합니다.

유치원	가정	유아
모든 교직원이 텀블러를 사용하며 모범을 보입니다.	부모님도 행사 참여 시 텀블러를 챙겨오는 습관을 들입니다.	유아들도 물병 사용을 일상화하여 생태전환에 동참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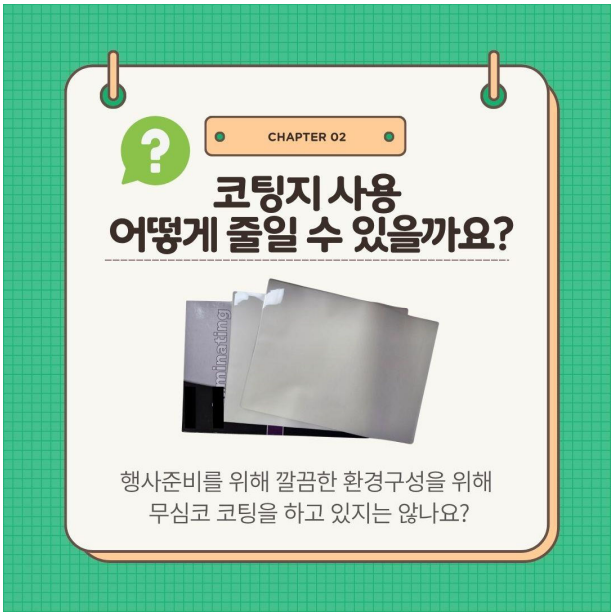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함께 시작해요.

텀블러 사용하기, 작은 실천 큰 변화!

6) 참 쉬운 코팅지 쓰지 않기













7) 자연 속에서 자라는 생태감수성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요

유치원 생태전환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어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아기는 감각과 정서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에요

아이는 자연과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서 '좋다, 신기하다, 소중하다' 느끼며 자연이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정서적 공감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유치원에서는 자연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실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교육공동체가 함께 조성해 가는 유치원 마당, 야외 공간



유치원 텃밭과 정원



생태 놀이터

계절별로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며 수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텃밭과 화단, 인조 시설물 대신 모래언덕, 자연에서 쉴 수 있는 공간, 모래, 물, 바람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태놀이터를 구성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가꾸고 실천하는 교실 안 환경



식물키우기 공간



자원순환 실천

교실에서도 매일 물 주고 관찰하며 생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식물키우기 공간 마련과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이나 수건 및 개인물병 사용을 생활화하는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8) 우리 주변 동물과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적 삶을 위한 첫 걸음

우리 주변 동물과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

아이들의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물과 함께 시작하는
친근한 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교육 카드뉴스 - 2025

문제인식

북극곰, 바다코끼리, 황제펭귄...
아이들과는 너무 거리가 먼 동물
이 아닐까요?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게 되어 생태감수성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무겁고 복잡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삶과 동떨어져 있는 동물들

2/5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매일 마주치는 동물과 교감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감

내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동물**도
소중한 자연의 일부!
함께 주변 생물을 찾아보아요.

*우리 동네 **새와 곤충**을 관찰해요.

*베란다에 찾아오는 **나비와 벌레**들도 소중해요.

*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 강아지**와 서로 안전하게 상호작용해요.

***달팽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작은 생명체를 소중히 여겨요.

*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작은 생물들**의 모습을 살펴봐요



작은 생명체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을 키워요

2/5

함께 관찰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달팽이와의 교감이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첫 걸음입니다.

실천

실제로 **우리 동네 새, 개미, 나비** 등 우리와 가까운 생명체를 만나고 **생태전환적 질문**을 던집니다.

*작은 개미나 하루살이는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지구의 주인**은 누구일까?

*모든 동물은 **자기 집**이 있을까? 이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집**은 어디일까?

* 이 세상에 **꿀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변의 생명체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생태전환교육 소재입니다.

4/5

생태전환적 상호작용
자연에 대한 지식을 모르더라도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하며 느끼는 감정, 자연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면 생태전환교육은 삶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모두 함께하는 친근한 생태전환교육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우리 주변 동물과 교감
우리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워요.

유치원	가정	유아
새 먹이통, 곤충호텔 등을 만들어 교내에서 주변 생물을 관찰합니다	주변 공원 산책, 우리 동네 생물 관찰 일지를 아이와 함께 작성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동물들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명 존중 의식을 기릅니다

5/5

멀리 있는 동물보다 가까이 있는 생명에 관심을!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과 함께 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 동물과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

V



에필로그 :
다큐를 담다

01.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02. 나의 문어선생님
03.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
04. 브레이킹 바운더리
05. 미니멀리즘, 오늘도 비우는 사람들
06. 우리의 지구, 끝나지 않은 여정
07. 지속가능한 지구는 없다
08. 죽음의 바다, 우리가 만든 비극
09. 플라스틱 인간 : 미세 플라스틱의 숨겨진 위기
10. 0교시 기후 위기
11. 산호초를 따라서
12. 더 코브 : 슬픈 돌고래의 진실
13. 물의 시선
14. 위대한 작은 농장
15. 붉은 지구
16. 달콤살벌한 고기 한 점
17. 인류세
18. 음식이 나를 만든다
19. THE람쥐, 잃어버린 기억
20. 누구나 가슴 속에 새 하나쯤 품을 수 있잖아요

에필로그 '다큐를 담다'

"이런 대반전이 있을 줄이야!"

내가 입다 버린 옷을 의류 수거함에 버리면 저 옷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 많은 버려진 옷들로 인해 아파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구환경보호의 선순환을 생각했지, 이 옷이 유행이 되어 폐페트병을 웃돈을 주고 사야하는... 그래서 결국 플라스틱을 더 생산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은 생각지도 못했다. 생태전환적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최선 또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2022 KBS 환경 다큐멘터리]

"생명체의 특별한 교감이 주는 큰 울림"

문어와 인간의 특별한 교감을 따라가다 보면 문어의 삶이 인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쉽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존중을, 문어를 대하는 다큐멘터리 속 인간의 태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이 작은 생명체를 대할 때, 그저 하찮은 존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주체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문어 선생님'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생명체와의 공존을 고민하게 만든다. 아이교육 현장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메시지를 생태전환교육에 녹여내어, 교실 속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존중과 공존의 씨앗을 심어가고 싶다.

[나의 문어 선생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지구의 시간은 유한하다!"

눈부신 지구의 아름다움 뒤에 이런 참혹한 사실이 숨어있을 줄이야…. 풍요로움의 이면에서 무너져가는 생태계와 멸종 위기에 선 생명들을 보며 그동안 외면해 왔던 책임을 직면했다. 사라져가는 숲과 빙하, 그리고 집을 잃은 동물들의 눈빛을 오래도록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절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 행동하면 충분히 우리는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 역시 마음을 관통하는 메시지였다. 결국 생태전환은 거대한 변화가 아닌,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

[데이비드 애튼버러: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

"과학이 보여주는 인류가 마주한 진실"

다큐멘터리 브레이킹 바운더리는 지구의 위기를 과학적 데이터로 드러내며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물과 영양분의 순환이 하나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마존 파괴는 단순히 숲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호흡을 위협하는 일임을 깨닫게 했다. 그러나 절망만을 남기지 않고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식습관 개선, 자원 순환 같은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 메시지에 공감하며, 식습관부터 바꿔 보겠다고 다짐해 본다.

[브레이킹 바운더리(지구의 과학):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비우니 비로소 내가 보였다!"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랍을 비우자 머리가 먼저 가벼워졌다. 남겨진 것들이 나를 말해주고, 비워낸 자리에는 쉼과 여유가 들어왔다. 그렇게 마음도 가벼워졌다. 덜 가짐은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다큐는 묻는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나는 더 가지려는 불안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 남기며 나다운 삶을 선택한다. 오늘도 조금 덜 가지며, 조금 더 나에게 가까워진다.

[미니멀리즘, 오늘도 비우는 사람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감탄과 실천의 어디쯤에 서 있는가"

우리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꿈꾼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 지금, 지구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만났다. 시간에 공을 들이고 최첨단 과학의 힘으로 촬영된 영상은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으로 전달되었다. 지구의 모습은 나에게 함께 하는 존재들에 대한 감탄과 존경심,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지구의 어느 풍경 하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 자산임을 알게 했다. 그리고 자연의 신비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감탄은 지구의 경고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나의 삶은 지구의 경고에 대해 얼마만큼 실천적일 수 있을까?

[우리의 지구, 끝나지 않은 여정 : 2019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지구는 거짓말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떠넘겨 받은 나라들이 우리의 소비와 편리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에 대한 환상과 탄소중립을 외치는 화려한 기업의 친환경 마크를 면죄부 삼아 우리는 여전히 안심한 채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구는 우리의 바람과 달리, 뼈아픈 진실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더 이상 우리의 쓰레기를 몰래 묻어둘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상 속에 숨지 않고,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작은 실천이 야말로 거대한 쓰레기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구는 없다 2부: KBS 다큐멘터리]

"한없이 품어줄 것 같았던 바다, 죽어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다를 죽음의 공간으로 만드는 해양쓰레기와 해양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인 바다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결국 인간의 삶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거나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려 했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공존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생태적 사고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먼저 변화해야 하며, 그 변화가 지속가능한 미래의 시작이다.

[죽음의 바다, 우리가 만든 비극: tvN 다큐멘터리《벌거벗은 세계사》]

"필연적 플라스틱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아이들은 태아일 적부터 모체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전달받으며, 태어나자마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젖병을 물고 살아간다. 다큐에서는 만연한 플라스틱 세상 속에서 최대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을 견제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미래 사회의 주인인 아이들이 스스로 환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생태전환교육이 필수적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자연과의 공존을 꾀하는 것은 미래를 살아갈 핵심역량이 된다. 이에 교사는 아이들이 생태감수성을 지니고 책임 있는 환경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인간 : 미세플라스틱의 숨겨진 위기]

"우리에게도 이미 다가온 미래"

2025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침수,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이어지는 가뭄의 문제들…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를 더 이상 '미래'나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 다큐 속 네팔의 산사태, 방글라데시의 홍수와 해수면 상승, 몽골의 반복되는 가뭄과 혹한은 이미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실이다. 기후 재난은 점점 더 잦아지고 강해지며,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 작은 발걸음이 모여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부터 변화를 향한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

[0교시 기후 위기: MBC 다큐멘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에, 어쩌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바다와 그 속의 산호초! 영화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산호와 산호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름다운 산호초와 죽어가고 있는 산호초의 대비를 보여주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대규모 백화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산호 외에도 형광색을 뿜으며 "나를 봐, 제발 알아줘"라고 외치는 산호초~ 보이지 않기에 무관심하고 외면했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산호초를 따라서]

"바다의 침묵, 우리의 물음은?"

'더 코브'를 보고 난 뒤, 돌고래의 미소는 더 이상 순수한 바다의 상징이 아니었다. 우리가 만든 소비와 오락의 문화가, 수많은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생태 전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내 작은 선택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번의 체험, 한 장의 티켓이 다른 생명의 자유와 맞바꿔진 것이라면,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돌고래와 공존하는 것은 곧 바다와 함께하는 길이며,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슬픈 진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를 묻는다. 바다의 침묵 앞에서 나는 다짐한다.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삶이 곧 인간을 살리는 길이다."

[더 코브 : 슬픈 돌고래의 진실,]

"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공존의 삶"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 그리고 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 물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이 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나요?" 시각 예술가 양쿠라는 한 달간 카약을 타고 전주 삼경사 약수터에서 새만금까지 약 80km의 물길을 따라 내려가며, 인간의 시선이 아닌 '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 여정 속에서 마주한 풍경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세계가 아니라, 물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였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물의 흐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있었다. 자연의 위대함, 그 안에서 인간 존재의 나약함,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개발로 인해 바뀌어버린 물길과 그 변화가 주변 삶에 미친 흔적까지 기록되었다. 양쿠라는 이 프로젝트에서 느낀 점들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전시하며, 관객들과 '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물의 시선: MBC 다큐멘터리]

"불편한 공존을 통해 교육의 길을 다시 배운다"

이 다큐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가 꿈꾼 건 자연과의 완전한 조화였지만, 우리는 '불편한 공존'의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고백은 생태전환교육이 직면한 실천적 과제를 정확히 드러낸다. 다큐는 실패와 불균형,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토양과 인간이 서로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코요테, 벌레, 미생물까지도 모두 이 생태계의 동반자이자 행위자였다. 우리는 흔히 '지속가능한 교육', '친환경 놀이'를 단정적 목표로 설정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불균형, 실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의 리듬이다. 교육은 통제의 장이 아니라, 삶의 복잡성을 체화하는 연습장이어야 한다.

[위대한 작은 농장]

"돌이킬 수 없는 1.5℃, 그 경계선 앞에서"

지구 온도가 1.5℃만 올라가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니... 영구동토층의 메탄 방출, 아마존의 사막화, 극지방 빙하의 급속한 융해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지구 스스로를 파괴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동안 '나 하나쯤이야'라며 안일하게 살아왔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아직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 남아있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작은 실천과 사회적 변화가 함께할 때 1.5℃라는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구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붉은 지구: 2021 KBS 다큐인사이트]

"작은 선택의 변화로 만드는 차이"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고기 한 점이 사실은 숲의 파괴, 메탄 배출, 물과 곡물의 낭비와 연결되어 있다. 개인이 채식한다고 당장 기후 위기가 멈추지는 않지만, 개인의 작은 선택이 사회적 요구로 모여 제도와 산업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성찰하게 된다. "완벽한 1명의 비건보다 불완전한 10명의 비건이 낫다"라는 말처럼 다큐는 "완전한 채식주의"를 강요하기보다 작은 선택의 변화(일주일 하루 채식, 하루 한 끼 채식)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의 식습관이 곧 지구를 대하는 태도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일상의 행동을 돌아보게 한다.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행위가 곧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윤리적 선택임을 생각하게 한다.

[달콤 살벌한 고기 한 점: 2021 KBS 환경스페셜]

"우리는 어떤 흔적으로 기억될 것인가?"

EBS 다큐프라임 인류세는 인류가 '영웅'이 아닌 지구 생태계의 '빌런'일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한다. 특히 '플라스틱 화석' 편은 우리가 무심코 쓰는 플라스틱이 지질학적 흔적으로 남아 미래에 인류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아이들과 함께한 토론에서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당연했던 일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작은 깨달음들이 생태전환의 시작이 됨을 실감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미래에 기억되고 싶은가?

[인류세 #2 플라스틱 화석: EBS 다큐프라임]

"육식과 채식, 당신의 선택은?"

풀만 먹으면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가?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일란성 쌍둥이들이 8주간 채식, 잡식을 나누어 실험하며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채식을 한 쌍둥이들이 콜레스레롤, 염증수치, 노화를 유발하는 염색체의 길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우리가 육식을 하기 위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채식의 의미를 안다면 평범한 사람도 맛있게 채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육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의 건강,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음식이 나를 만든다: 쌍둥이 실험: 2024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도토리나무와 THE람쥐, 그리고 깨진 균형"

도토리나무와 다람쥐는 오랜 시간 공생 관계를 이어왔다. 도토리는 다람쥐의 주된 먹이가 되고, 다람쥐는 저장 습관으로 일부를 땅에 묻는다. 그중에 일부가 싹을 틔워 새로운 숲의 생명을 이어간다. 이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는 자연의 순환이다. 추운 겨울 동면한 THE람쥐가 봄이 되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난 이유는 기후위기로 도토리가 예전보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탓에 동면을 이어갈 만큼 먹이를 먹지 못하고 잠이 들었기 때문이란다. '다람쥐의 굶주림이 단지 작은 동물의 죽고 사는 문제로만 끝날 것인가? 다람쥐가 없어진다면 도토리나무는?' 균형이 깨진 숲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도토리나무와 다람쥐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듯, 우리와 지구도 무너지지 않고 서로가 지탱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THE람쥐, 잃어버린 기억 1부: 2021 sBS 스페셜]

"「새」며듦으로 지구의 친구로 살아가기"

산골생태유학생들의 '새'로운 시골생활! 시골마을로 유학 온 아이들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철새를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과 마을에 정을 붙여가는 내용의 다큐를 보며 우리 유치원과 아이들이 떠올랐다. 우리 유치원과 주변 환경은 다양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학교 유리창에 부딪쳐 죽거나 우리들의 놀이 공간에 둥지를 튼 새들을 마주한다. 우리는 함께 의논하여 새들이 더 이상 유리창에 부딪치지 않도록 학교 유리창에 버드세이버를 설치하고, 우리들의 놀이 공간을 잠시 새들에게 내어주기로 하였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있는 이곳에서 경험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물, 새! 이 새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유리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간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지구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공존하기'를 실천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누구나 가슴속에 새 하나쯤 품을 수 있잖아요: 2024 KBS]



2025 유치원 생태전환교육 정책실행교육연구회

생태전환적 삶으로 스며들다

연구회원

전 순 희 [공립한가람유치원 원장]
김 정 희 [동패유치원 원장]
이 정 희 [김포한가람유치원 원감]
임 자 옥 [도덕초병설유치원 원감]
장 소 영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사]
임 현 수 [호암유치원 교사]
강 하 리 [송양유치원 교사]
강 혜 진 [화성신동초병설유치원 교사]
고 지 연 [평택고덕유치원 교사]
김 아로미 [백봉초병설유치원 교사]
박 경 미 [배곧초록유치원 교사]
박 은 혜 [민락초병설유치원 교사]
송 가 연 [부천양지초병설유치원 교사]
오 다 운 [운흥초병설유치원 교사]
유 덕 향 [중산초병설유치원 교사]
윤 경 희 [율포숲유치원 교사]
윤 선 애 [녹양유치원 교사]
이 지 영 [송양유치원 교사]
임 지 숙 [나루아이유치원 교사]
전 선 영 [조현초병설유치원 교사]
최 명 선 [양주유치원 교사]

자문

한 유 진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